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vol.312 12



표지

피아니스트 조성진

© Harald Hoffmann / DG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사랑의 묘약', 나의 첫 오페라 연출 데뷔작

세계의 공연장

쇼팽 콩쿠르가 열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BUSAN 2018, AGAIN!

LIFE

BUSAN

2018.1.1 MON
— 4.8 SUN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www.seelife.co.kr

주최 (주)부산문화회관, (주)다들다들 (주)세이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17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Program

하이든 | 교향곡 제45번 「고별」 중 제4악장
 F.J.Haydn | Symphony No.45 in F sharp minor "Farewell", H.1/45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합창」
 L.v.Beethoven | Symphony No.9 in D minor "Choral", Op.125

지휘 최수열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신동원
 베이스 전승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2017. 12.22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락킹블루드의 황제 싱어송라이터

김종서 콘서트

KIM JONG SEO
CONCERT



2017.12.16(토) 1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NextStage** 해운대 문화회관

주관 **락 엔터테인먼트**

티켓 1층 VIP석 50,000원, 1층 R석 40,000원

2층 S석 30,000원, 2층 A석 20,000원

예매 **인터파크** **YES24** **COM**

전화 예매 및 문의 051-749-7651(해운대문화회관)

관람연령 만8세이상

누림회원 초 중 고 단계 30명이상(30%), 장애인(50%)

누림회원카드, 학생증, 장애인카드 확인 후 매표소에서 티켓 발부

2018년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BRPO) 단원 모집 공고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와 함께 할 단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11. 01.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단장

1. 모집개요 및 전형일정

모집부문 및 인원	실기전형 과목	실기 및 면접 일시	합격자 발표
교향악단 바이올린 00명, 비올라 00명 첼로 00명, 콘트라베이스 00명 플루트 0명, 오보에 0명 클라리넷 0명, 바순 0명 호른 0명, 트럼펫 0명 트롬본 0명, 타악기 0명 정 단 원 : 60명 객원단원 : 40명	1. 자유곡 빠른 1악장 2. 초견곡(e메일 전송) ※ 반주자 없이 진행	• 실기 = 현악기 : '18. 1. 17(수)~18(목) 9시 - 관악기, 타악기 : '18. 1. 19(금) 9시 • 면접 : '18. 1. 29(월)~30(화) 9시 • 실기합격자에 한하여 면접하여 전형일정 참고하기 바람	• 실기합격 발표 : '18. 1. 22(월) • 최종 : '18. 2. 5(일)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 실기 및 면접전형 장소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케스트라 연습실

2. 응시자격

- 지역 및 학력 제한은 없으며, 단원으로 임용과 실용을 갖춘 자
- 응시하는 날상의 경우는 병역을 공란 처리 하는 명세서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7. 11. 1 ~ 12. 22. 18:00분
- 접수기간 : 2017. 11. 1 ~ 12. 22. 18:00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e-메일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유효
- 접수처 e-메일 : kong303@hanmail.net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제공-이동통신서 1부
-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실기 전형과목 및 유의사항

- 파트별 실기전형 반주자 없이 진행
- 문의 :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사무국(☎ 051-206-7740, mobile 010-8503-0000)
- 접수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

6. 합격자 결정방법

- 실기(현악 50%, 관악기 50%) 합산하여 고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 실기시험 또는 면접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재고득점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시 부득의자가 발생하거나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가 결정사유 또는 무기 통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기전형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수석단원 및 특별전형은 단장이 선별

7. 참고(유의)사항

- 작곡자가 없을 경우 선불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단원의 경우 채용기간 3년(년 8개월 1년 단위 계약)
- 복무 등은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복무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기재착오, 누락, 연차없는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근무조건 요강 참조

SPECIAL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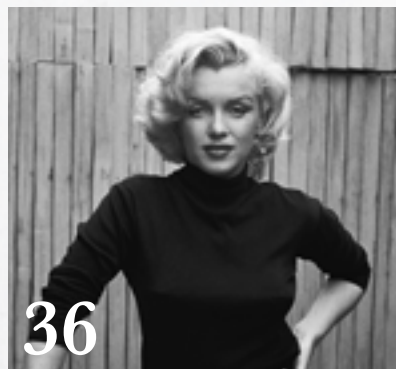
©Harald Hoffmann / DG



16

CULTURE +

세계의 공연장
쇼팽 콩쿠르가 열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36

VIEW +

전시화제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59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contents

SPECIAL +

- 08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CULTURE +

- 10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12월 공연 캘린더
- 14 오페라 연출가 이익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사랑의 묘약', 나의 첫 오페라 연출 데뷔작
- 16 세계의 공연장
쇼팽 콩쿠르가 열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 20 테마가 있는 여행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고장 통영

VIEW +

- 26 프리뷰
- 36 전시화제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NEWS +

- 56 새로 나온 음반 / 새로 나온 책
- 58 SNS 서포터즈 공연관람기
- 59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가의 초대

2017년 12월호 통권 312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11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Harald Hoffmann / DG

Seong Jin Cho

“콩쿠르 우승자라는 꼬리표에 속지 마라. 이 사람은 진짜 예술가이다.”

SAN FRANCISCO CHRONICLE_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무결점의 테크닉, 예술적인 선율, 극적인 구성, 타고난 기품과 젊은 연주자 특유의 새로운 해석,
이 모든 것들이 조성진에게 극찬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THE WASHINGTON POST_워싱턴 포스트

“건반의 시인과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SIMON RATTLE_사이먼 래틀

2018년 희망찬 새해와 함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처음 부산을 찾는다.

‘쇼팽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자’로 현재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계 스타로 사랑받고 있는 조성진은 지난 11월 1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마에스트로 사이먼 래틀로부터 ‘건반의 시인과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극찬을 받으며 피아니스트로서의 이정표를 또 다시 새겼다.

쇼팽 콩쿠르 이전부터 이미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조성진은 지난 2005년, 그의 나이 11살 때 첫 독주회를, 2009년 5월에는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뛰어난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으로 지난 2009년 제7회 하마마쓰 콩쿠르에서는 최연소 우승자의 영예를 얻었으며, 이어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와 2014년 루빈스타인 국제콩쿠르에서 3위에 올라 확실한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마침내 2015년 10월, 만 21살의 나이로 제17회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 스타 탄생을 알렸다.

쇼팽 콩쿠르에 출전한 가장 큰 이유가 ‘더 많은 연주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던 조성진은 이제는 평균 4~5일에 한 번씩 무대에 오르는 벅찬 스케줄을 이어 나가고 있다. 조성진은 그동안 지휘자 정명훈, 로린 마젤, 마렉 야노프스키, 미하일 플레트네프, 발레리 게르기에프,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등 권위 있는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섰으며,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을 포함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다. 또한 뉴욕 카네기홀의 ‘비르투오소 시리즈’, 암스테르담 콘세르

트허바우홀의 ‘피아니스트 마스터 시리즈’를 비롯해 도쿄 산토리홀, 서울 롯데콘서트홀, 파리 센느 뮤지컬, 루체른 KKL,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등 세계 유명 공연장의 초청을 받아 그 무대에 서기도 했다. 조성진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신중하면서 시적이고, 확고하지만 부드러우며, 화려한 테크닉과 색채감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순수하면서 기품 있는 연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2016년 도이치그라모폰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조성진은 그해 11월,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피날레를 장식하고 조성진에게 우승을 안겨주었던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과 ‘4개의 발라드’로 이루어진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월 17일에는 2018년 사후 100주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 곡으로 이루어진 솔로 앨범을 발매했다. 이번 부산콘서트에서도 그의 새 앨범 ‘드뷔시’에 수록된 곡 중 ‘영상(Image) 2집’이 2부 첫 곡으로 연주된다. 콘서트 1부는 베토벤 소나타로, 그가 과거 인터뷰에서 좋아한다고 밝혔던 8번과 30번으로 베토벤 초기와 후기 작품을 1부에 나란히 배치했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할 곡은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으로, 쇼팽의 곡이지만 그가 공식 무대에서 거의 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선곡으로 기대가 모인다.

이번 부산콘서트는 조성진의 첫 전국 투어의 첫 번째 일정으로, 부산에 이어 서울(10일, 11일)과 전주(13일), 대전(14일)에서 총 5차례 독주회를 연다. ‘조성진 신드롬’이라 불릴만큼 열렬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조성진이기에 11월 28일 예매를 앞두고 벌써부터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예매가 진행되었던 서울과 대전, 전주의 경우 눈 깜짝할 사이에 전석이 매진되면서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기도 했다.

PROGRAM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8번 작품 13 '비창'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30번 작품 109
- 드뷔시/영상 2집
- 쇼팽/피아노 소나타 3번 작품 58

2018년 1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1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2

2017 DEC

부산문화회관
공연일정

SUN	MON	TUE
<p>12/31</p> <p>대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제아음악회' 22:30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박상용의 전통춤 17:00 박상용무용단(010-9336-333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3</p> <p>대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부산유니온 발레단 마술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16:0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캠 방진이 피아노 리사이틀 18:00 파크아트매니지먼트(010-3391-415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4</p> <p>대 원로예술인과 함께하는 오페라 길라 콘서트 19:30 초대 (사)이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p>	<p>5</p> <p>대 ◆ 2017 부산오페라WEEK_솔오페라단 '라 보엠 in Concert' 19:3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솔오페라단(1544-9373)</p> <p>중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320-8331~5)</p> <p>캠 제8회 소프라노 조신미 독창회 19:30 초대/부산예술가극(010-3884-4623)</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p>
<p>10</p> <p>대 ◆ 2017 부산오페라WEEK_그랜드 오페라단 송년 오페레타 '박쥐' 17:00 12만원·8만원·5만원·3만원·2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중 부산플루트앙상블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 17:00 2만원·1만원 부산플루트앙상블(010-4431-3373)</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1</p> <p>캠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송년음악회 19:30 2만원·1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12</p> <p>캠 WonderCello feat-양욱진 20:00 전석 1만원 WonderCello(010-3551-6332)</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7</p> <p>대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레베카' 15:00 14만원·12만원·9만원·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Life Music' 19:30 무료/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010-5165-5363)</p> <p>캠 이유현 피아노 리사이틀 18:00 전석 2만원/theYoon(010-9025-2012)</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p>	<p>18</p> <p>캠 피아니스트 김지민 독주회 19:30 초대 김지민(010-7442-7627)</p>	<p>19</p> <p>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송년음악회' 19:3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p> <p>중 KBS부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초대 KBS부산어린이합창단(010-5533-7706)</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4</p> <p>대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전국투어 콘서트 : 클라시카' 18:00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2017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14:00, 18:00 6만원·4만원/주피엠퍼니프로덕션(157-7627)</p> <p>캠 아컴퍼니 챔버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한겨울 밤의 크리스마스' 17:30 3만원·2만원·1만원/아컴퍼니(010-5246-5651)</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p>	<p>25</p> <p>대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전국투어 콘서트 : 클라시카' 18:00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6</p> <p>캠 2017 송년음악회 19:30 2만원·1만원 (주)문화드림(933-9923)</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 대** 대극장 **중** 중극장
- 캠** 챔버홀 **아** 야외광장
- 사** 사랑채극장

WED	THU	FRI	SAT
<p>전시설</p> <p>제35회 대한민국미술대상전 입상작품 전시회 12월 1일(금)~12월 9일(토) 문의 : (사)한국현대미술협회 정태정 010-5488-3375</p> <p>남구예술회 합동전시회 12월 10일(일)~12월 14일(목) 문의 : 부산남구문화원 010-5548-2542</p>	<p>제20회 대한서화예술대전 12월 17일(일)~12월 22일(금) 문의 : (사)대한서화예술협회 342-9971</p> <p>한국서예협회 회원전 12월 24일(일)~12월 27일(수) 문의 : (사)한국서예협회 부산광역시지회 010-9631-4130</p>	<p>1</p> <p>중 ◆2017 부산오페라WEEK_부산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5만원·3만원·2만원/부산오페라단(644-1001)</p> <p>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국연주회'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유니온 발레단 마술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17:0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1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6: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6</p> <p>중 무지카비바 제27회 정기연주회 '바로크&레이디 가가' 19:30 2만원·1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원 나예지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전석 1만원/나예지(010-5646-2153)</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7</p> <p>중 부산진구남성합창단 창단 5주년 기념음악회 19:30 무료/부산진구청 문화체육관광과(605-4631)</p> <p>원 제4회 앙상블 A-ri 정기연주회 책 읽어주는 음악회 '어린 왕자' 19:30 전석 2만원/앙상블 A-ri(010-4666-6268)</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8</p> <p>중 2017 송년음악회 19:30 전석 1만원 M&M 상악연구회(010-4434-6605)</p> <p>원 피아니스트 백민정 초청 독주회 19:30 2만원·1만원 포르테아트매니지먼트(010-7120-1145)</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9</p> <p>대 ◆2017 부산오페라WEEK_그랜드오페라단 송년 오페레타 '박쥐' 19:30 12만원·8만원·5만원·3만원·2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중 러시아 음악의 밤 17:00 전석 1만원/러시아음악연구회(010-5702-1225)</p> <p>원 최영식 비올라 독주회 17:00 전석 1만원/예술기획(010-4909-7444)</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p>
<p>13</p>	<p>14</p> <p>중 ◆부산시립극단 제60회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 19:30 2만원·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5</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레베카' 19:30 14만원·12만원·9만원·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부산시립극단 제60회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 19:30 2만원·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원 ◆테너 김충희 독창회 19:30 2만원·1만원/부산문화(1600-1803)</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p>	<p>16</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레베카' 15:00, 19:00 14만원·12만원·9만원·7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부산시립극단 제60회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 17:00 2만원·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5)</p> <p>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피스트 광정의 하프 이야기' 17:00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p>
<p>20</p> <p>대 ◆2017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19:30 7만원·5만원·4만원·3만원 부산문화(1600-1803)</p> <p>원 브라스타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브라스타앙상블(010-2699-3498)</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1</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4회 정기 연주회 '송년 국악레전드 콘서트'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중 2017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19:30 6만원·4만원 (주)피엠씨프로덕션(1577-7627)</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2</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5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69회 정기연주회 '2017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2017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19:30 6만원·4만원/(주)피엠씨프로덕션(1577-7627)</p> <p>원 앙상블 The Feliz : The End가 아닌 The And 20:00 초대/앙상블 The Feliz(010-5198-771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p>	<p>23</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50회 정기연주회 '플라밍고 함께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16:00, 19:0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p> <p>중 2017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15:00, 19:00 6만원·4만원/(주)피엠씨프로덕션(1577-7627)</p> <p>원 라무지카 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2만원·1만원/라무지카 앙상블(010-4560-5322)</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p>
<p>27</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소현&손준호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19:30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극단 바문사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정과정(鄭瓜亭)' 19:30 전석 2만원/극단 바문사(554-820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8</p> <p>대 2017 부산솔리스트앙상블 19:30 전석 3만원 부산일보사(461-4437~8)</p> <p>중 ◆극단 바문사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정과정(鄭瓜亭)' 19:30 전석 2만원/극단 바문사(554-820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9</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콘서트 III' 19:30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96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19:30 10만원·3만원 동국예술기획(010-4762-4333)</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p>	<p>30</p> <p>중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96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19:30 10만원·3만원 동국예술기획(010-4762-4333)</p> <p>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2

2017 DEC

부산시민회관
공연일정

12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SUN	MON	TUE
<p>전사실</p> <p>한들 신미경 서예전 11월 28일(화)~12월 3일(일) 1층 전시실 문의 : 신미경(010-7756-5636)</p> <p>제13회 포토클럽 빛그림자 사진전 11월 29일(수)~12월 3일(일) 2층 전시실 문의 : 포토클럽 빛그림자 010-3844-4246</p>	<p>그림미조은사람들 제10회 정기전 12월 5일(화)~12월 10일(일) 1층 전시실 문의 : 그림미조은사람들 010-2729-6665</p> <p>먹샘회 제24회 정기전 12월 6일(수)~12월 10일(일) 2층 전시실 문의 : 부산먹샘회 010-4542-4109</p>	<p>제40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12월 12일(화)~12월 15일(금) 1층 전시실 문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31-4111</p> <p>청사회 창립 50주년 사진전 12월 13일(수)~12월 15일(금) 2층 전시실 문의 : 청사회 010-3596-9724</p>
<p>3</p> <p>대 여성창극 '공쥐 팔쥐' 18:30 전석 3만원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644-5211)</p> <p>소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11:00, 14:00 전석 3만5천원 극단 바위처럼(1577-4868)</p>	<p>4</p> <p>소 뮤지컬 '배달왔습니다' 10:00 초대 엠스테이지(070-7787-2356)</p>	<p>5</p> <p>대 한화 팜&클래식 여행 19:30 초대 (주)제이에스바흐(070-4234-1305)</p> <p>소 송요한 첫 번째 피리독주회 20:00 무료 송요한(010-9984-8753)</p>
<p>10</p> <p>대 패밀리쇼 '핑크퐁과 상어가족' 11:00, 14:00, 16:30 5만5천원·4만4천원/극단 화랑(1644-5564)</p> <p>소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앙상블의 밤 18:00 초대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010-4563-5067)</p>	<p>11</p> <p>대 애창곡의 향연 19:30 부산예술기획(635-4728)</p> <p>소 부산시민회관 월요무료영화상영회 '마스터' 14:0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67)</p>	<p>12</p> <p>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 19:00 무료/삼광사 화엄합창단(808-7011)</p> <p>소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예고 동문음악회 19:30 전석 2만원 김지윤(070-4007-1948)</p>
<p>17</p> <p>대 송패밀리 콘서트 17:00 초대 송패밀리(867-0274)</p> <p>소 어린이뮤지컬 '2017 NEW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전석 3만5천원 리일락항기(904-0825)</p>	<p>18</p>	<p>19</p> <p>대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14:00 초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633-0260)</p> <p>소 제2회 슬로스합창단 송년음악회 19:30 무료 슬로스합창단(010-5416-9057)</p>
<p>24</p> <p>대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3_우당탕탕 집짓기 대작전' 11:00, 14:00 5만5천원·4만4천원 동그라미그리기(805-5355)</p> <p>소 신개념 나이트 연극 '더가이즈' 14:00, 17:00 전석 3만5천원/이플림 부산(1644-5764)</p>	<p>25</p> <p>대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3_우당탕탕 집짓기 대작전' 11:00, 14:00, 16:30 5만5천원·4만4천원/동그라미그리기 (805-5355)</p> <p>소 신개념 나이트 연극 '더가이즈' 14:00, 17:00 전석 3만5천원/이플림 부산(1644-5764)</p>	<p>26</p> <p>대 고성현과 노래하는 친구들 19:30 5만원·3만원·1만원 우리아트(920-9545)</p>
<p>31</p> <p>대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시그릿 쥬쥬_오디션편' 11:00, 14:00 5만5천원·5만원/극단 바위처럼(1577-4868)</p> <p>소 싱어롱 콘서트뮤지컬_Live Show '무지개물고기' 11:00, 14:00, 16:00 전석 2만5천원/극단 화랑(1644-5564)</p>		

WED	THU	FRI	SAT
<p>제24회 열매전 12월 16일(토)~12월 21일(목) 1, 2층 전시실 문의 : 열매회 010-8364-1033</p> <p>석하 한현숙 서예전 12월 23일(토)~12월 29일(금) 1층 전시실 문의 : 한현숙 010-4691-0316</p>	<p>최은송 개인전 12월 23일(토)~12월 27일(수) 2층 전시실 문의 : 최은송 010-7704-1373</p> <p>(사)부산광역시수석연합회 회원전 12월 29일(금)~12월 31일(일) 1, 2층 전시실 문의 : (사)부산광역시수석연합회 010-5308-8224</p>	<p>1</p> <p>대 부산중구시니어코스 제4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 부산중구시니어코스(010-3590-2434)</p> <p>야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통합기념 '시민뜨락축제-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12:20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3)</p>	<p>2</p> <p>대 2017 개그쇼콘서트 15:00, 18:00 7만7천원·6만6천원 (주문화락(1600-1602))</p> <p>소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11:00, 14:00, 16:00 전석 3만5천원 극단 바위처럼(1577-4868)</p>
<p>6</p> <p>대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 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010-4576-4844)</p>	<p>7</p> <p>대 정명훈과 함께하는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 19:30 초대/영앤앰섬(02-720-3932)</p> <p>소 부산광역시 정신보건기관 수고했DAY 15:00 초대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42-2575)</p>	<p>8</p> <p>소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봉사단 정기공연 19:30 무료/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320-8341)</p> <p>야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통합기념 '시민뜨락축제-JOY 합창단' 12:20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3)</p>	<p>9</p> <p>대 패밀리쇼 '핑크퐁과 상어가족' 11:00, 14:00, 16:30 5만5천원·4만4천원/극단 화랑(1644-5564)</p> <p>소 2017 매니아무용 in 벨리 정기공연 18:00 전석 1만원 매니아무용학원(635-4522)</p>
<p>13</p> <p>대 K.R. POP 1인 2색 콘서트 19:00 전석 3만원 한아방송(010-6688-0071)</p>	<p>14</p> <p>대 2017 송년음악회 '메시아' 19:00 초대 온누리오페라단(1661-6702)</p> <p>소 어린이뮤지컬 '2017 NEW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0:30, 11:40 전석 3만5천원 라일락항기(904-0825)</p>	<p>15</p> <p>소 어린이뮤지컬 '2017 NEW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0:30, 11:40 전석 3만5천원/라일락항기(904-0825)</p> <p>야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통합기념 '시민뜨락축제-바다새 김혜정' 12:20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3)</p>	<p>16</p> <p>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통합기념 제4회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15:00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3)</p> <p>소 어린이뮤지컬 '2017 NEW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16:00 전석 3만5천원 라일락항기(904-0825)</p>
<p>20</p> <p>소 2017 브라부라 콘서트 19:30 무료 브라부라색소폰앙상블(010-5502-7982)</p>	<p>21</p> <p>대 가족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10:30, 11:30 극단 레전드(1688-3820)</p>	<p>22</p> <p>소 신개념 나이트 연극 '더가이즈' 20:00 전석 3만5천원/이골림 부산(1644-5764)</p>	<p>23</p> <p>대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3_우당탕탕 집짓기 대작전' 11:00, 14:00 5만5천원·4만4천원 동그라미그리기(805-5355)</p> <p>소 신개념 나이트 연극 '더가이즈' 16:00, 19:00 전석 3만5천원/이골림 부산(1644-5764)</p>
<p>27</p> <p>소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 상영회 '판도라' 14:00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3)</p>	<p>28</p> <p>대 솔트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09:30 초대 솔트어머니합창단(709-9940)</p> <p>소 퓨전국악 리일락 창단공연 19:30 전석 5천원 (주)사운드팩토리판(010-8012-2613)</p>	<p>29</p>	<p>30</p> <p>대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시그릿 쥬쥬_ 오디션편' 11:00, 14:00, 16:00 5만5천원·5만원 극단 바위처럼(1577-4868)</p> <p>소 싱어롱 콘서트뮤지컬_ 'Live Show' 무지개물고기 11:00, 14:00, 16:00 전석 2만5천원/극단 화랑(1644-5564)</p>



‘사랑의 묘약’,
나의 첫 오페라 연출 데뷔작

L'ELISIR D'AMORE

14

지난 1999년 모교인 경원대학교(현재의 가천대학교)에서 처음 이 작품의 조연출을 맡아 대본과 악보를 익히고 있던 중 라디오에서 전설의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1921-2004)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듣는 순간 숨이 멎어 버렸다. 그전에도 루치아노 파바로티(1935-2007)나 티토 스키피(1885-1965)의 음반으로 많이 들어 봤지만 그날따라 스테파노의 음성은 그야말로 나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서 주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과정에 다니면서도 이 작품의 스펙터는 늘 손에서 떼지 않았고 악보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찾기를 반복했다.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으로 온 세계가 시끄러울 때 마침 유학 중이던 나는 이탈리아 베르가모라는 도니제티(1797-1848)의 고향 오페라 극장에서 이 작품을 보며 당시 고국의 일반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사랑의 묘약’으로 언젠가 전국을 돌며 공연을 하고픈 소망을 갖게 되었다.

2005년 귀국을 하게 되고, 국립오페라단이 주최, 주관한 프로젝트 ‘쁘띠 오페라 시리즈’로 내게 작품 의뢰가 들어 왔다. 그 작품이 바로 내가 그렇게 바랐던, 그리고 제일 자신있게 생각하던 ‘사랑의 묘약’이었고 이 작품으로 나는 첫 데뷔의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다. 다음은 당시 내가 적어봤던 연출 노트이다.

흔히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가장 ‘순수했던 사랑’이며 ‘내 영혼을 맑게 정화시켜주었던 사랑’으로 기억하고, 그 순수했던 ‘기슴 떨림’을 추억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두근거림은 때로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주인공 또한 순수하다 못해 바보스러울 만큼 한 여인만을 사랑합니다.

그에게 있어 그녀는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도니제티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순수한 첫사랑’의 설레임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속에 한줄기 빛처럼 사랑의 그리움과 설레임이

무대라는 새로운 공간에 잮아들어 여러분 곁에 다가갑니다.

수줍은 듯... 소리 없이...

나는 이 데뷔 작품에서 현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지휘자와 성악가들, 그리고 당시 나를 비롯한 참신한 신예들과 함께 공연한 덕분에 신선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이 작품의 성공으로 국립오페라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계속 성공적으로 나의 일들을 수행한 덕분에 2006년부터는 상근 연출자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국립오페라단에서는 이미



지지난해 '사랑의 묘약' 프로젝트를 크게 올렸기에 나에게 이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작품의 판로를 내가 찾아야 했다. 그러던 차에 '문화뱅크'라는 서울시 지정 전문 예술단체에서 콘서트 오페라 형식의 '사랑의 묘약' 의뢰가 들어왔고, 나는 점차 이를 발전시켜 프리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업으로 '이의주의 해설이 있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프로젝트를 공연할 수 있었다. 점차 '사랑의 묘약'을 잘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스페셜리스트로 2011년 예술의전당 주최 '전국 대학 오페라 축제'에서 연출 의뢰가 들어왔고,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전국 공연에 관한 꿈을 연출가 노트에서 밝히기에 이르렀다.

아주 오랜 옛날 아리따운 농장주 아디나와 그녀를 사랑하는 네모리노, 그리고 양증맞은 잔네타와 땀의 가치를 아는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트리스타와 이졸데'라는 외국 서적, 즉 외국 문화가 사람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흡수된다...중략

온 마을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네모리노는 군대에 가기로 마음먹게 된다. 여기서 하늘의 도움으로 외부의 자본-네모리노 삼촌의 유산-이 들어와 유리된 상공업을 바로잡고, 군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돌카마라와 벨코레를 마을에서 내보내게 되고 두 젊은이는 사랑을,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게 된다...중략

이번 '사랑의 묘약' 공연을 준비하면서 일년 내내 사랑의 묘약을 연출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연출자의 어처구니없는 해석도 이 오페라의 음악과 스토리에 푹 빠져드는 순간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예술의 향기에 흠뻑 젖어 들게 되는 감동과 기쁨의 순간을 비단 연출자 혼자만 느끼며 지내기에는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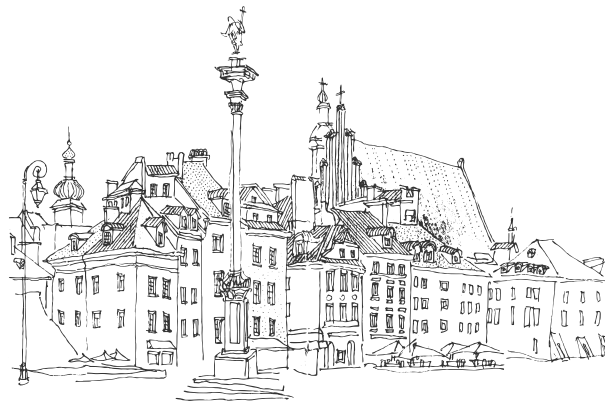
그렇게 연출 노트를 남긴 그 해 가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사업에 프리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내가 했던 그 형태로 지원을 요청했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2012년부터 '전국 방방곡곡 시리즈'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서울 경기권인 인천, 안산, 의정부, 군포, 안양, 여주를 비롯해 제주도, 강원도 정선, 충북 청주, 충주, 그리고 작년 11월 12일에는 부산, 올해 11월 23일에는 울산에서도 공연을 하는 등 전국 16개 도시 순회공연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내가 입버릇으로 말하던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데뷔 후 12년여의 세월 속에 이 작품의 인지도는 매우 높아졌고, 누구나 아는 작품이 된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나는 또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부산에 랜드마크로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그 오페라 하우스에 1년 내내 부산 시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으로 상설 공연을 해 보는 것이 나의 꿈이고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란 소망을 갖는다. 마치 베르가모에서 그 작은 소망의 촛불을 켜 것처럼 말이다.

세계의 공연장

글·사진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WARSAW



쇼팽 콩쿠르가 열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16

며칠 전 베를린필하모닉의 내한공연 때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랑랑을 대신하여 사이몬 래틀의 마지막 아시아 투어의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큰 호평을 받았다. 그가 일약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던 건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부터이다. 우승 당시 인터뷰 영상에서 조성진은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폴란드 태생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인 프레데릭 쇼팽을 기념하여 1927년부터 시작된 피아노 경연대회이다. 쇼팽 콩쿠르는 차이콥스키, 쾨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의 하나로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등용문이다. 필자는 지난 달 폴란드 바르샤바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호에 이야기하게 될 바르샤바의 공연장을 소개하기 이전에 앞서 잠시 쇼팽 콩쿠르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볼까 한다.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쇼팽의 기일인 10월 17일 전후 약 20여 일간 개최되는 쇼팽 콩쿠르는 역대 수상자의 명단 자체가 세계적인 거장들의 이름과 겹친다.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헤리치, 게리크 올슨,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스타니스라프 부닌 등이 그러하다. 연주 곡목은 쇼팽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17세~28세의 참가 연령 제한이 있으며 피아니스트의 취향에 따라서 스타인웨이, 뵘제노르

퍼, 파치올리, 야마하, 가와이 중에서 선택하여 연주할 수 있다. 2015년 제17회 콩쿠르에서 조성진이 우승했는데, 그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그의 연주를 들은 후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를 듣지도 않고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에게 조성진이 우승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바르샤바 내셔널 필하모닉 *National Philharmonic in Warsaw*

바르샤바 국제공항의 이름 역시 프레데릭 쇼팽 공항이다. 얼마 전 폴란드항공이 취항하면서 바르샤바는 국내에서도 직항으로 도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레데릭 쇼팽은 폴란드가 낳은 최대의 작곡가이다. 실상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시대를 통틀어 중앙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는 대작곡가가 탄생되지 않았으나 19세기에 들어서 폴란드의 쇼팽, 헝가리의 리스트 등이 낭만주의의 꽃을 피웠다.

폴란드의 11월은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영하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비가 오는 날 도착한 바르샤바의 날씨는 우중충한 도시의 느낌처럼 스산했다. 바르샤바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문화 궁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바르샤바 내셔널 필하모닉(National Philharmonic in Warsaw, 폴란드어로는 Filharmonia Narodowa w Warszawie)은 1901년 건축가 카를 코즐로프스키에 의해서 지어졌다. 당시 유행하던 절충주의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2차 대전 당시 파괴되었고, 1955년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식의 건물로 지어진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목재 캐비닛에 들어있는 고풍스러운 파이프 오르간이 자리하고 전면에 있으며, 1층 파켓과 ㄷ자 형태의 1층 발코니와 2층 발코니를 합쳐 1,069석의 객석을 가지고 있다. 살라 콘체르토바(Sala Koncertowa)라고 하기도 한다. 공연장 체적이 크지 않아서 오케스트라 홀의 음향은 꽤 훌륭한 편이다. 이 연주홀에서 쇼팽 콩쿠르가 개최되며, 최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바르샤바 필하모니와 협연한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Reformation)'을 들을 수 있었다.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니 관현악단이 상주해 있으며 내셔널 필하모닉이 오픈할 당시 에밀 무리날스키의 지휘로 데뷔 콘서트를 열었다. 또한 현대음악제로 잘 알려진 바르샤바의 가을이 이 연주홀을 중심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바르샤바 내셔널 필하모닉 전경



1



2



3

1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 3, 4 바르샤바 국립오페라극장
5 오페라 '리골레토'



4



바르샤바 국립오페라극장 *Opera narodowa, Teatr Wielki, Warsaw*

극장 광장에 위치한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립오페라극장은 비엘키(Wielki) 극장이라고도 불린다. 극장에 도착하면 그 규모에 한 번 놀라고 극장 파사드가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과 비슷해서 또 한 번 놀란다. 폴란드 사람들은 비엘키 극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오페라 발레극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면 좌우로 펼쳐진 건축물의 연면적까지 포함하면 실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건물에는 두 개의 공연장이 있는데 메인 공연장은 폴란드 국민 작곡가인 스타니스라브 모니우츠코를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붙인 1,840석의 공연장으로 오페라와 발레가 시즌별로 번갈아 오른다. 또 다른 하나는 에밀 물리나르스키 강당으로 250석 규모의 소극장이다. 또 폴란드 극장 박물관도 함께 있는데 과거 메인 홀의 부속실이었던 공간을 박물관으로 개조했다. 오페라 애호가인 라디슬라우스 4세는 1632년 왕이 되자 궁중에 작은 오페라 극장을 건설했다. 대개 이탈리아 오페라단이 방문해서 공연을 가졌는데 1774년부터는 현재 폴란드 대통령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드지위트 궁의 공연장에서 오페라와 발레가 공연되었다. 이후 1778년 폴란드 작곡가에 의한 첫 오페라 '가난이 행복'이라는 오페라가 무대에 올랐는데 현재 폴란드 국립오페라(PNO)의 시작이다.

지금 모습의 공연장은 1825년부터 1833년까지 8년간의 건축으로 이뤄졌으며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코라찌가 설계했다. 1833년 개관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작품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였다. 2차 대전 중 폭격을 맞아 거의 파괴되었고 지금의 모습은 1965년 재개관한 것으로, 전쟁 후 20년이 지나서야 국립오페라극장이 재건되었다. 바르샤바 국립극장은 내년이면 설립 185주년을 맞는다. 오늘날 이 극장은 200년에 가까운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레파토리 중 상당수는 폴란드 국민 오페라들과 함께 공연되는 것이 특징이다. 극장 내부는 흰 대리석과 천장 그리고 금장을 두른 검정색 프레임으로 화려한 외관과 달리 그리 장식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3층의 발코니가 복층의 메조네트 형식의 단을 두고 있어서 어느 좌석에 앉아도 시야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관람일 당시 오페라 '리골레토'를 보았는데, 무대 세트의 규모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극장 공간보다 갑절은 큰 부속건물에서 오페라 세트와 의상이 직접 만들어지는데, 바르샤바 국립오페라단의 제작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간혹 오페라 극장은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는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페라 극장은 극장 명칭과 동일한 프로덕션이 함께 존재하며 오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장, 의상, 무대세트 등을 만드는 제작 공간과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함께 할 수 있는 연습공간이 같이 있어서 실제 공연과 이를 위한 제작시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칭 북항에 들어서는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다고 알고 있다. 바람컨테 눈 앞에 보여지는 오페라하우스의 공연장 기능 말고도 오페라 및 발레 공연을 올리기 위한 부수 공간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고장 통영

겨울의 길목 '입동(立冬)'도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 둘째 주 금요일, 정기회원과 떠나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1월 테마여행지는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한려수도의 심장 통영. 천혜의 자연환경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서려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을 비롯해 시인 김춘수, 유치환, 김상옥, 극작가 유치진, 작곡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 선생 등이 바로 이곳 통영 출신이다. 이들 예술가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통영 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전해련, 이상민 씨가 동행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11월 10일 이른 아침,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은 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들로 북적거렸다. 떠나가는 짧은 가을을 아쉬워하듯 화창한 날씨에 회원들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2시간 30분여를 달려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은 '꽃'의 시인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청마문학관. 통영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망일봉 기슭에 자리한 청마문학관에는 청마의 유품 100여 점과 각종 문헌자료 3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어 선생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문학관 바로 위쪽에는 시내 중심에 있던 생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킨 청마생가도 자리하고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청마문학관을 나와 발길을 옮긴 곳은 바로 문학관 지척에 자리한 이순신공원. 공원에 들어서자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통영 앞바다를 향해 우뚝 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높이만 17m에 달하는 대형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통영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데크가 자리해 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 풍광에 회원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는다. 바닷길 따라 조성된 전망데크를 따라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며 모처럼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순신공원 한켠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과 함께하는 '아리랑춤' 강습시간이 펼쳐졌다. 처음 익히는 우리 전통춤사위에 어색해하던 회원들도 단원 전해련, 이상민



씨의 열정적인 지도에 어느새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춤사위를 따라한다. 20여 분간의 강습을 마치고 더욱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서둘러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상 가득 맛깔스럽게 차려진 점심식사로 배를 든든히 채운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첫 일정을 위해 요즘 통영의 핫 플레이스로 새롭게 떠오른 ‘서피랑’으로 출발했다.

서피랑은 ‘서쪽 끝에 있는 높은 비랑(비탈의 지역 사투리)’이란 뜻으로 우리에게도 벽화마을로 유명해진 동피랑과 마주하는 언덕배기에 자리잡고 있다. 서피랑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나고 자란 공간이자 세계적 음악가 윤이상 선생이 소학교를 다녔던 등교길이었으며 천재화가 이중섭이 한국전쟁 피난시절 통영에 거주하며 작품을 완성한 곳이기도 하다. 한동안 낙후지역으로 방치되다 지난 2013년부터 통영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피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99개 계단길은 벽화와 조형물을 활용한 예술작품으로 조성되면서 현재 박경리와 윤이상의 문학과 예술을 상징하는 책과 나비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99개 계단길 인근에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크고, 5옥타브까지 실제 연주가 가능한 대형 피아노계단이 만들어지면서 최근에는 동피랑 못지않은 정감있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짧은 일정에 쫓겨 다 둘러볼 수 없어 아쉬웠던 회원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윤이상 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2010년 3월, 독창적인 음악언어로 세계 현대음악계에 이름을 남긴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가가 있던 도천동 일대에 조성된 윤이상 기념관은 선생의 유품과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된 전시관과 실내공연장인 메모리홀, 야외공연장이 들어서 있다.

“윤이상 선생은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하며 현대 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을 만큼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생존 당시 이미 유럽의 5대 작곡가로 뽑혔으며,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 교수들이 뽑은 역대 최고 음악가 44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윤이상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윤이상 기념관’에는 윤이상 선생의 출생에서부터 프랑스, 독일 유학 생활, 그리고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향에서 눈을 감아야 했던 비운의 생애가 각종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 1959년 세계 무대에 자신의 작곡 능력을 처음으로 알린 실내악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 오페라 ‘심청’ 등의 친필악보와 윤이상 선생이 직접 연주했던 첼로와 바이올린도 전시관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상세한 해설과 함께 기념관을 한 시간가량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통영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박경리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에 묻힌 ‘한국 현대문학의 어머니’인 작가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박경리기념관은 선생의 대표작인 소설 ‘토지’의 육필원고와 편지, 관련 신문기사 등이 전시되어 있는 유품전시실과 영상자료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 있다. 또한 선생이 직접 만든 누비저고리 옷, 평소 집필하던 원주의 서재를 재현해놓은 방도 전시되어 있어 선생의 생전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자리한 선생의 묘소까지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어둑어둑해지는 통영 바다를 뒤로 하고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길 닿는 곳마다 위대한 예술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11월 통영여행, 그들의 삶과 예술세계만큼이나 오랜 기억으로 정기회원들의 가슴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대가야의 고장 고령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고령 도착, 대가야박물관, 대가야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답사
- 12:30 개실마을 도착, 중식
- 13:30 개실마을 탐방 및 전통체험
- 16:00 부산으로 출발

1.12월 대가야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 고령으로 떠나는 역사기행. 대가야박물관을 시작으로 대가야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점필재 선생의 정신이 살아있는 개실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12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 | | |
|-----------------|-----------------|
| 고영주(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이경자(남구 황령대로) |
| 곽량교(영도구 해양로) | 이남지(부산진구 월드컵대로) |
| 김수미(남구 석포로) | 이영준(수영구 수영로) |
| 김중현(영도구 일산봉로) | 이희정(동래구 사직북로) |
| 신영미(해운대구 해운대로) | 최미숙(사상구 엄궁북로) |

● 기존 회원

- | | |
|----------------|-----------------|
| 권호경(동래구 명륜로) | 박창열(남구 석포로) |
| 김경희(부산진구 동천로) | 신상수(사상구 양지로) |
| 김외경(연제구 월드컵대로) | 안영수(금정구 중앙대로) |
| 남미영(해운대구 반여로) | 이효정(연제구 반송로 80) |
| 박명자(수영구 연수로) | 정례수(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된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YEAR-END CONCERT

The Great Guys

금관 5중주 콘체르트 쿠치어 & 포르테
오페라 아리아 '여자의 마음', '남몰래 흘리는 눈물',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백조의 호수 조곡 외

2017. 12. 19 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주한)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대외: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oc.or.kr
입장권: 균일 2,000원 문의: 051-607-3117

이동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한민국 5번 출구 유엔로까지 방향 100M "7번가리개" 앞 → 부산문화회관
· 운행시간: 월 - 금 18:30 / 19:00 (17:30) 공연시간: 공연실는 날에 한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솔로브라스퀸텟 SOLUS BRASS QUINTET





플라잉과 함께하는

Happy 크리스마스

2017. 12.23(토) 오후 4시,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 이건륜

- 지휘 | 이건륜, 이영옥, 노금선
- 출연 |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지휘/홍지형), 울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진식)
김영림(하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남순전(소프라노,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김리라(소프라노), 김태우(바리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특별출연 | 플라잉 배우 왕위첸(화랑), 제리거(도깨비)
- 출연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 균일 2,000원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607-3170~1

View Plus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포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시립극단 제60회 정기공연 사랑 공감 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



열정과 꿈만으로도 행복했던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그 시절 시대적 향수를 불러일으킬 부산시립극단 사랑 공감 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12월 14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12월 1일 새롭게 재개관하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개관 기념공연으로 선보이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전국연극제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상인 최우수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부산시립극단 광종필 예술감독과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작가 오은희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작품으로, 지난해 12월 제57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대장금' 등으로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부산 출신의 작가 오은희가 부산시립극단의 위촉을 받아 부산을 배경으로 특별히 제작한 맞춤형공연으로, 지난 1970년대 부산의 영도와 을숙도를 배경으로 시대적 아픔과 사랑을 그려낸 음악극이다. '한동안 뜸했었지', '오 영원한 친구', '미인' 등 그 당시 유행했던 익숙한 음악들과 배우들의 현란한 춤, 그리고 빠른 무대변화 등 다양한 볼거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연출을 맡은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광종필은 지난 1995년 공식 연출데뷔작인 '우리들의 광시곡'으로 부산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1999년 연극 '느낌, 극락같은'으로 전국연극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2002년에는 연극 '이(爾)'로 또 다시 전국연극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면서 연출가로 그 이름을 알렸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홈커밍데이를 맞아 주인공 헤르만 강이 40년 만에 부산을 찾으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모교인 해양대학교를 찾은 헤르만 강은 사랑 고백에 실패하고 풀이 죽어있는 대학생 동규의 모습에서 20대이던 지난 1970년대 젊었던 자신의 모습과 그 시절 사랑했던 정화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그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헤르만 강과 헤르만 강이 옛사랑을 만나면 자신과 여자친구인 채경의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동규는 헤르만 강의 과거로 돌아가 1970년대의 열정 가득했던 시절을 되짚어본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배우 전성환이 지난 무대에 이어 또 한번 주인공 헤르만 강 역을 맡아 관록의 연기를 펼친다.

부산시립극단 창단 초기 예술감독위원회 위원으로 부산시립극단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전성환은 부산시립극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중 하나인 연극 '리어왕'을 비롯해 '파우스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세일즈맨의 죽음', '고도를 기다리며' 등 연극 150여 편을 비롯 이운택 감독의 영화 '오구', 김기덕 감독의 '활' 등 영화와 TV드라마, CF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으며, 이 해랑 연극상을 비롯해 제13회 늘원 향토문화상(1986), 제15회 한국 연극예술상(1989), 부산시 문화상(1989), 제1회 한국 가족문화상(2000)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일시 12월 14일(목)~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레베카'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서스펜스 뮤지컬 '레베카'가 부산을 찾는다.

28

'감동적인 로맨스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서스펜스', '깊은 감정의 변화를 절묘하게 담아낸 강렬한 선율', '극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화려한 무대'라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낸 뮤지컬 '레베카'는 지난 2013년 초연무대부터 2014년, 2016년 무대에 오를 때마다 '레베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과 뮤지컬 음악의 거장 실베스터 르베이와의 만남으로 제작 당시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레베카'는 '서스펜스의 여왕'으로 불리는 영국의 여성 작가 대프니 듀 모리에의 동명소설을 그 원작으로, 소설 '레베카'는 1938년 출간 이후 한 번도 절판된 적 없는 미스터리고 고전이다. 가난하지만 순수하고 솔직한 소설 속의 나레이터인 '나(I)'가 상류사회의 부유하고 미스터리한 남자 막심을 만나 동화처럼 결혼하게 되지만 막상 그녀가 첫 발을 디딘 맨덜리의 대저택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 뒤에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몇 년간 판권을 얻기 위해 노력한 끝에 1940년에 영화화됐고 그 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제1회 베를린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아직 까지도 스릴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에서 영감을 얻은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 콤비는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독특한 시선으로 '레베카'를 재탄생시켰다. 르베이의 힘있는 음악은 높이 치솟는 감정, 분노, 광기 등과 더불어 사랑의 순간을 빠른 템포의 음악으로 표현했으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맨덜리 저택을 화려한 영상과 무대연출로 구현해내면서 극의 재미를 극대화시켰다. '레베카'는 2013년 초연 당시 5주 연속 티켓 예매율 1위,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시작으로 2014년, 2016년 공연까지 91%를 웃도는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네 번째 시즌이었던 올 한 해 관객들의 폭발적인 성원 속에 통산 400회라는 기록을 세우며 객석 점유율 93%, 1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그 흥행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고로 죽은 전 부인 레베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남자 막심 역의 민영기, 정성화, 송창의, 죽은 레베카를 숭배하며 맨덜리 저택을 지키는 집사 댄버스 부인 역의 신영숙, 옥주현, 사랑하는 막심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댄버스 부인과 맞서는 나(I) 역의 김금나, 이지혜 등 최고의 뮤지컬배우들이 출연, 관객의 마음을 흠치는 노래와 연기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7일 일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피스트 광정의 하프 이야기



하피스트 광정



하피데이앙상블



색소포니스트 최진우

천상의 악기 하프로 전하는 따뜻한 음악이야기 '하피스트 광정의 하프 이야기'가 12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세계적인 하피스트 광정과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하프 전문연주단체인 하피데이앙상블,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최진우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는 아름다운 음색과 우아함을 지닌 하프 연주로 색다른 송년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1997년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 당시 거장 주빈 메타가 직접 협연자로 선정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하피스트 광정은 미국 인디애나 음대, 이스트만 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그동안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도쿄 스트링 콰르텟, 제네바 챔버 오케스트라,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야나체 필하모니,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바로크합주단 등 세계적인 연주 단체들과 협연했다. 특히 주빈 메타는 서울 공연에서 크게 감동받아 그녀를 자신의 무대에 정기적인 협연자로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필과 유럽, 이스라엘 순회공연을 갖기도 했다. 광정은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 최초로 클래식 하프와 전자 하프를 동시에 연주하는 하피스트로서 2001년부터 꾸준히 전자 하프를 소개해오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하프 페스티벌의 Co-founder이자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USA 국제하프콩쿠르 최연소 이사, (사)하피데이앙상블 이사장 및 음악감독, 코리안 하프 페스티벌 예술감독 및 대한민국

국제 하프 콩쿠르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하피스트들로 구성된 하피데이앙상블은 지난 2002년 금호 영아티스트 오디션에서 앙상블 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으며 그 해 금호아트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하피데이앙상블은 '하피데이(Harp+Day · 하프의 날)'라는 이름처럼 하프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연주하는 물론 하프 교육과 하피스트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카네기홀에서 뉴욕 데뷔 리사이틀을 가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화려한 색소폰 선율로 송년무대를 더욱 북돋워줄 색소포니스트 최진우는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의 무대를 통해 인정받고 있는 색소포니스트로, 2014년 뉴욕 브로드웨이 'YMCA Theater'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Miclrot Chmaber Players'의 색소폰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하프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지는 존 토마스의 '캠브리아(Cambria)'를 비롯해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맨시니 '문리버', 파헬벨 '개논', 헨스-코넨트 '바로크 플라멩고', 비발디 '사계' 중 '겨울'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하프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일시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4회 정기연주회

송년 국악레전드 콘서트



지휘 이정필



소리 남상일



바이올린 박은주



민요 최윤영



민요 김세운

2017년을 마무리하며 신명 넘치는 우리음악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4회 정기연주회 '송년 국악레전드 콘서트'가 12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계의 아이돌' 소리꾼 남상일과 MBC 관현악단, 경기도립 팜스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은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경상도민요보존회 대표 최윤영,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패가 출연, 우리음악과 서양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를 꾸민다.

첫 무대는 창과 관현악을 위한 '청장격려(淸壯激勵)'. 각기 다른 장단으로 전통소리 창법과 민요의 음계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창작 소리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가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2015 KBS국악대상 민요상, 제5회 한국가요제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단장,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향두계놀이 이수자로 있는 최윤영이 국악가요 '큰애기 반봇짐, 배치기'를 선사한다.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홈델의 '트럼펫 협주곡 내림마장조'를 통해 송년의 아쉬움을 화려한 트럼펫 선율로 날려주며,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불리던 동부민요 '상주아리랑,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은 제20회 KBS국악대경연 민요부분 장원, 제30회 온나라 전국국악

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하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이수자로 있는 김세운이 들려준다.

이어지는 곡은 아르헨티나의 무곡 '탱고'를 기본으로 국악선율의 서정성을 탱고 리듬에 녹여내면서 새로움을 시도한 안현주의 탱고협주곡 'Dance of moonlight'으로, 박은주팜스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있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박은주의 연주로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파격적인 무대와 거침없는 입담으로 최근 가장 핫한 소리꾼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남상일은 이번 무대에서 '태평가, 천안삼거리, 남원산성, 까투리타령, 장타령' 등 흥겨운 민요연곡으로 부산시민과 만난다. KBS국악대경연 종합대상, KBS국악대상 판소리상,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인상',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남상일은 현재 민속악회 수리 대표, 우리창극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며 다양한 무대와 방송을 통해 젊은 세대에 국악을 알리는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경기도당구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으로, 이주현(쟁과리), 최오성(장구), 최정욱(징), 박재현(제금)으로 구성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패가 열정적인 타악연주로 희망찬 신년을 노래한다.

일시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5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69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17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지휘 최수열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신동원



베이스 전승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며 희망찬 2018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2017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가 12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송년무대로 사랑받아온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는 올해 역시 '합창'으로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매년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은 사랑과 평화, 환희를 주제로 한 실러의 시에 곡을 붙인 합창이 4악장에 등장하면서 '합창'이라는 부제가 붙여진 곡으로, 베토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작곡한 역작이자 그가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신동원, 베이스 전승현이 솔리스트로 출연, '합창'의 감동을 전해준다. 소프라노 강혜정은 지난 2005년 뉴욕 Kaye Playhouse에서 공연한 오페라 '미술피리'의 파미나 역으로 데뷔, 뉴욕타임스로부터 '다채롭지만 유연한, 너무나 달콤한 소프라노'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으며,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한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은 독일 브레멘 시립극장, 카셀 시립극장, 렌즈부르크 극장, 쉘레스비히 극장, 함부르크 알레극장, 체코 프라하 극장 등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

동했으며, 국내 무대에서도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교향악단과의 협연 등 다수 무대를 통해 전문연주자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수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신동원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카루소 콩쿠르, 팜비치 오페라 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그 이름을 알렸으며, 오페라 '아이다'의 라다메스 역으로 영국 코벤트 가든의 로얄오페라하우스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오페라, 독일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독일 드레스덴 쾰퍼오페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국립오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국내외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서 베이스 주역으로 데뷔 후 밀라노 라 스칼라, 피렌체 오페라극장, 로마 오페라극장,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비엔나 국립극장, 베를린 도이체오페, 마드리드 왕립극장 등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한 베이스 전승현은 2011년 세계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독일정부가 수여하는 예술가들의 최고영예인 '캄머징어(궁정가수)' 작위를 수여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합창' 무대에 앞서 첫 곡으로는 저물어가는 송년의 아쉬움을 담은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고별' 중 4악장을 들려준다.

일시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전국투어 콘서트 : 클래식



2017년 크로스오버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포르테 디 콰트로가 12월 24일과 25일 부산을 찾는다.

JTBC의 클래식 크로스오버 오디션 프로그램인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으로 데뷔한 포르테 디 콰트로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해온 테너 김현수와 베이스 손태진,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후 뮤지컬계의 블루칩으로 손꼽혀 온 뮤지컬배우 고훈정,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텀싱어'가 발굴한 신예 이버리로 구성되어 있다. '4명의 힘' 또는 '4중창의 파워'를 뜻하는 '포르테 디 콰트로'는 '팬텀싱어'의 파이널 라운드에서 결성된 팀으로, 결선 1, 2차 무대에서 현장투표와 시청자투표를 통해 두 차례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초대 우승팀이 되었다. 특히 두 번의 결선 무대에서 '별이 빛나는 밤(Notte stellata)', '오디세아(Odissea)', '베를레노래', '아다지오(Adagio)' 등 네 곡을 노래하면서 '팬텀싱어'의 취지인 천상의 하모니에 가장 걸맞은 팀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팀 결성과 동시에 2017년 상반기,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데카(DECCA Records)를 통해 음반과 전세계 음원이 발매되었으며, 스웨덴 작곡가 프레데릭 캠프와 국내 최고의 작사가 김이나, 윤사라 등이 참여한 첫 번째 음반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호주, 독일 등

크로스오버 강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음반 발매 후 5월부터 시작된 전국투어 콘서트는 서울공연 4,000석이 15분 만에 전석 매진된 데 이어 고양, 성남, 수원, 전주, 청주, 광주, 대구, 부산, 창원 등 14개 도시 16회 공연과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앙코르 콘서트가 모두 매진되어 그 실력과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 역시 지난 11월 출판된 두 번째 음반 '클라시카' 발매를 기념해 마련한 무대로, '클라시카'에 수록된 곡들을 중심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클라시카'는 영화 '올드보이', '건축학개론', '겨울연가' 등의 작품을 통해 실력과 작곡가로 인정받는 이지수 씨가 음악감독을 맡아 선곡과 편곡, 녹음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으며,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3악장에 한 글자라도 없애 새롭게 탄생시킨 타이틀곡 '좋은 날'을 비롯해 클래식 명곡을 새롭게 해석한 곡들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국내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지휘봉을 잡은 지휘자 김덕기가 지휘하는 코리아 쿼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다 깊이 있고 웅장한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

일시 12월 24일-25일 일-월요일 오후 6: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소현&손준호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뮤지컬배우 김소현



연극배우 손준호



뮤지컬팝스 오케스트라



뮤지컬계의 스타부부 김소현, 손준호가 마련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12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KBS 2TV ‘불후의 명곡’, SBS ‘오 마이 베이비’ 등 방송을 통해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뮤지컬배우 부부인 김소현, 손준호가 다시다난했던 2017년을 떠나보내며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송년무대로, 유명 뮤지컬에 수록된 넘버로 뮤지컬의 감동과 함께 가족 간의 사랑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는 최근 뮤지컬과 방송계를 두루 섭렵하며 대표적인 스타부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성악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김소현은 2001년 ‘오페라의 유령’ 한국 초연무대에 주인공 ‘크리스틴’으로 캐스팅되어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른 후 ‘그리스’, ‘지킬 앤 하이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을 거쳐 2015년 ‘명성황후’, ‘마리 앙투아네트’ 등 주요 뮤지컬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명실공히 한국 뮤지컬 분야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제9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어워드 올해의 스타상, 2013년 제14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4년부터는 남서울예술종합학교 뮤지컬학과 학과장에 재직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연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성악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2010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손준호는 정확한 발음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호평을 받으며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삼총사’, ‘오페라의 유령’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현재 남서울예술종합학교 뮤지컬학과 교수로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방송에 김소현과 동반출연해 재치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Crazy for you’, ‘돈 키호테’, ‘노트르담 드 파리’, ‘지킬앤하이드’ 등 유명 뮤지컬 넘버를 비롯 TV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향수’, ‘사랑의 찬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2014 인천 아시아게임 개/폐막식 공연, 대구뮤지컬페스티벌 개막식 공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기획공연 및 초청공연, 부산연극제 폐막식, 부산 열린바다 열린축제, 여의도 불꽃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뮤지컬 갈라팀 ‘The Muse’와 지난 2002년 창단된 후 뮤지컬 음악과 팝스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해온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가 함께 출연하여 마치 한 편의 대형 뮤지컬을 관람하는 듯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Ⅲ 금난새 & 뉴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금난새



소프라노 김유진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태경

'불멸의 악성(樂聖)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세 번째 무대가 12월 29일과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과 고려제강 F1963 콘서트홀에서 두 차례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는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은 9곡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구,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부산 출신의 젊고 유망한 단원들이 함께하며 관객들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특히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음악에서 최고의 역작이라 불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들려준다. 음악사에서 독창자와 합창을 동반하는 최초의 교향곡인 '합창'은 곡 속에 담긴 자신과 박애정신으로 헨델의 '메시아'와 더불어 매년 송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번 무대는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김유진,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태경, 그리고 부산지역 성악가들로 구성된 부산연합합창단이 출연, 깊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솔로이스트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김유진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독일 국영 에이전시 ZWF 소속, 미주 초청 연주 솔리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그동안 벅스코 개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부산세계불꽃축제 야외오페라 '투란도트' 등 수많은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

기도 한 김유진은 현재 동아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이태리 제노바 파가니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메조소프라노 박소연은 이태리 부살라국제콩쿠르, 디스테파노 국제콩쿠르, 마리오 란차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국내외 독창회 및 오페라 주역, 갈라콘서트, 오라토리오 솔로이스트,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경성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테너 김지호는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쾰른 국립음악원, 러시아 마그니타 고르스크 연주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일본 나고야홀 오페라 갈라 듀오 콘서트, 러시아 국립극장 초청 독창회, 예술의전당 25주년 기념 음악회, 이태리 포짜극장 초청 갈라 오페라 페스티벌, 이태리 '토레 델 라고'극장 푸치니 페스티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립오페라단 초청 음악회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탈리아 G.Braga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kammer 오페라극장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베이스 김태경은 다수 오페라 주역과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현재 수영구여성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치과의사 합창단 지휘자, (주)판컴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시 및 장소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30일 토요일 오후 7:00 고려제강 F1963 콘서트홀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제야음악회



지휘 강석희



오보이스트 이운정



소프라노 박지현



바리톤 서정학



사피 손지현

2017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8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7년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는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로부터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왔다.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강석희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마련되는 2017 제야음악회에서는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피로 바리톤 서정학, 소프라노 박지현, 오보이스트 이운정, 팡페라 콰르텟 '디에스'가 출연, 2017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전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강석희는 그동안 오페라를 비롯해 고전, 낭만,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을 소화하며 탄탄한 해석력을 지닌 지휘자로 알려져왔다.

밝고 경쾌한 주제의 '경기병 서곡'으로 음악회의 문을 여는 1부에서는 바리톤 서정학과 소프라노 박지현이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야 이 거리의 만물박사', 레하트 오페레타 '주디타' 중 '너무나 뜨겁게 입맞춤하는 내 입술',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이중창 '입술은 침묵하고' 등 아름다운 선율의 오페라 아리아로 2017년을 떠나보낸다. 꿈의 무대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과 유럽 최고의 무대인 비엔나 국립극장을 정복한 한국 최초의 남자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은 지난 1996년 동양인 최초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Merola Grand Finals에서 최고영예

인 Schwabacher Family Awards를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전문성악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박지현은 독일 자브뤼켄 주립극장 오페라단원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이태리와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되는 2부에서는 로시니 '월리엄 텔' 서곡을 시작으로 엔니오 모리코네 '넬라 판타지아', 치마로사 '오보에 협주곡 다장조'를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금호아트홀 챔버 뮤직소사이터, 세종목관챔버앙상블 멤버로 활동하며 탁월한 테크닉과 뛰어난 곡 해석력을 지닌 연주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오보이스트 이운정의 연주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팬텀싱어' 출연자로 이름을 알린 바리톤 박정훈, 2017 전국 CCM페스티벌 대상에 빛나는 테너 이성신, 팡페라 앙상블 '라스페란자', '유엔젤보이스'의 리더였던 테너 정주영과 베이스 바리톤 박진현 등 4인으로 구성된 팡페라 콰르텟 '디에스'가 '그란데 아모레, 벨스도르마, 여러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신년음악회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밝아온 새해의 희망을 노래한다. 2부에 앞서 휴식시간에 마련되는 로비콘서트에서는 베이시스트 박동화, 피아니스트 SUNNY, 드러머 허준영으로 구성된 클래식 재즈 트리오의 경쾌한 재즈 연주가 펼쳐진다.

일시 12월 31일 일요일 오후 10: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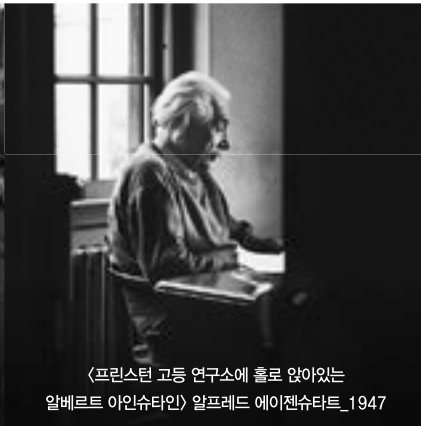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TO SEE LIFE | TO SEE THE WORLD



〈V-J Day 수병의 키스〉 알프레드 에이젠슈타트_1945



〈프린스턴 고등 연구소에 홀로 앉아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알프레드 에이젠슈타트_1947



〈링컨 기념관에서 개최된 자유를 위한 기도에서 연설 중인 마틴 루터 킹 목사〉 폴 슈체_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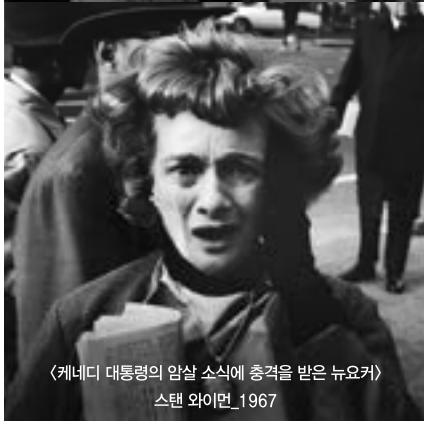
〈홍남부두에서 빅토리아 메레디스 호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피난민들〉 데이비드 더글라스 텅컨_1950



〈유니폼을 입고 교실에 앉아 시합을 기다리고 있는 소년야구단의 어린 선수들〉 예일 조엘_1954



〈쇼윈도에 설치된 TV를 보고 있는 꼬마 신사〉 랄프 모스_1949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소식에 충격을 받은 뉴욕계〉 스탠 와이먼_1967



〈파리 몽수리 공원의 야외극장에서 인형극 '성 조지와 용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아이들〉 알프레드 에이젠 슈타트_1963



〈편안한 복장으로 집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마블린 먼로〉 알프레드 에이젠슈타트_1953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 '라이프 사진전'이 2018년 1월 1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사진이 위대했던 시대를 이끈 사진잡지 '라이프'

'타임(Time)', '포춘(Fortune)'을 창간한 헨리 루스(Henry R. Luce)가 지난 1936년 11월 창간한 '라이프(Life)'는 사진만이 지니는 생생한 박진감으로 포토저널리즘을 주도하며 창간호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수십 년간 포토저널리즘의 영역을 개척하는 뛰어난 화보(畫報) 기사뿐 아니라 윈스턴 처칠과 해리 트루먼, 더글러스 맥아더 등 현대사를 장식한 주요 인물들의 회고록 게재 등으로 수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 세계의 저널리즘을 이끌었던 '라이프'는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차츰 광고 수입이 줄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결국 1972년 12월 통산 1862호를 발간하고 휴간한 뒤 복간과 휴간을 반복하다 지난 2007년 4월 중간간 후로 인터넷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3,000,000부의 경이로운 구독자 수, 900만 장에 이르는 아카이브와 90명의 전속 사진기자, 500여명에 이르는 계약 사진기자 등 사진이 가장 위대했던 시대를 이끌었던 '라이프'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목격자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지난 1956년 첫 전시 이후 4번째로 열리는 이번 '라이프 사진전'에서는 그동안 국내 전시에서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130여 점을 엄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지난 세기의 역동성을 생생히 전한다.

새롭게, 활기차게 그리고 따뜻하게

2014년 '라이프 사진전'이 20세기의 굵직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모노드라마였다면, 2018년 부산을 다시 찾는 '라이프

프 사진전'은 20세기의 삶과 세상에 대한 옴니버스처럼 엮여있다. 전시는 20세기를 바라보는 20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는 'This is LIFE',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상징적인 인물과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Icon', 오로지 20세기에 탄생한 물건과 현상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20th Century Life', 그리고 사진잡지 '라이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시선을 보여주는 마지막 섹션 'Hope'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TIME에서 선정한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진 100'에서 선정된 4장의 사진이 이번 전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작품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다큐멘터리 필름도 같이 전시된다. 더불어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의 전설적인 포토에세이 '시골의사', '스페인 마을'을 라이프 잡지 원본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의 영웅과 아이콘들의 삶, 사랑 그리고 신념

오강가(주술사)로 불리던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그와 비슷한 외모 때문에 더 가까워졌던 20세기의 지성 아인슈타인, 혼돈의 시기에 지도자의 책임과 운명에 마주섰던 처칠과 해리 트루먼, 가장 권위 있는 상조차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장 폴 사르트르(노벨상)와 존 레논(영국여왕 훈장), 말론 브란도(아카데미상)의 신념, 희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마틴 루터 킹과 백범 김구 선생 등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과 그것을 온전히 기록한 작품을 통해 하나의 시대 정신을 대표했던 영웅과 아이콘의 삶, 사랑 그리고 그들의 신념을 만날 수 있다.

탄생과 소멸, 절망과 희망의 이중주

'라이프'는 전쟁 사진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삶에 대한 긍정적 시

선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 무기를 버리고 1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가장 위대한 패배 흥남철수작전, 희대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소아마비 치료법을 무료로 공개한 조나스 소크 박사, 맹인이 되어서도 어린 생명의 탄생을 돌보았던 프랑스 의사 알버트 내스트가 보여주었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꽃핀 희망이 사진으로 전해진다.

'보고, 놀라고, 즐기고, 배우자' 라이프 사진전의 각별한 이벤트

부산 전시 최초로 관객 경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전시는 다양한 눈높이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도슨트부터 전 작품 도슨트 '라이프 마라톤'까지 독특한 운영방식이 돋보인다. 또한 깜깜한 전시공간에서 자신만의 손전등으로 작품을 관람하는 '라이프 라이트', 오직 한 커피를 위한 전시장에서 스몰 웨딩까지 놀라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 부산문화회관 인근에 위치한 '쌍둥이 돼지국밥'과 카페 '정화', 그리고 부산 예술영화의 메카 '국도예술관'까지 인근 문화공간과 카페, 맛집과 연계해 관람객에게 보다 더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본다는 것은 세상의 무수한 장애물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라 믿었던 헨리 루스의 믿음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 '보고, 놀라고, 즐기고, 배우자.'

*이벤트 일정과 참여방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월)~4월 8일(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입장료 일반 1만 3천원
청소년 1만 1천원
어린이 9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70-7542-8531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 광근수 음악평론가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앙상블은 대체로 시대연주를 표방하고 있다.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연주의 변혁이다. 왜 시대연주인가? 음악은 연주에 의해서 표현된다. 작곡가의 작품은 연주자에 의해 해석되고 연주된다. 그래서 음악은 재현의 예술이고, 해석의 예술이다. 동일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연주자가 결정하는 해석에 따라 재현의 내용은 현저하게 달라지고, 악기의 종류나 주법에 따라서도 연주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이 음악이 갖는 매력이다.

바로크 시대에 이미 악기들은 현재의 기능에 육박할 만큼 개량에 큰 진전을 보였지만, 거의 현악기에 국한된 것이었고 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등은 그 후로도 계속 개량과 발명이 거듭되어 19세기 중엽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현악기의 경우,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현은 양의 내장을 가공한 거트(gut)를 사용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제1현에 강철 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주 공간이 대형화되면서 현악기의 음량도 증대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활도 18세기 말엽까지는 활대가 반월형인데다 굽이가 없고 길이도 일정하지 않은 것이 사용됐는데, 프랑스의 투르트(François Tourte)에 의해서 현재의 활이 완성되었다. 활이 개량되면서 그때까지는 불가능했던 스피카토(Spicato, 활의 중앙부를 쓰는 빠른 속도의 주법)를 구사하게 되어 연주법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타케하루 노부하라(延原武春)가 이끄는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이 지난 11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콘서트를 가졌다. 산토리 음악상, 오사카 문화축제상, 독일 연방공화국 공로훈장 등의 수상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한 일본 시대연주계의 제1세대 앙상블이다. 악기편성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챔발로 등으로 전형적인 바로크 편성이고, 단원들은 모두

젊었고 개개인의 연주기량은 고르고 뛰어났다. 시대연주 초창기에는 원전악기를 강조해서 현악기에서는 거트 현과 바로크 활, 비올라 다 감바 등을 고집했던 앙상블들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해 개량된 현대 활이나 감바 패밀리가 아닌 바이올린 패밀리의 첼로 등을 편성하는 추세를 이 악단도 채용했다. 시대연주 초창기에 일부 전문가들이 보여준 독선적 태도가 아닌 이른바 절충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연주에서는 바로크 피치를 선택하고, 비브라토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등 시대연주의 규범을 철저히 보여준 연주였다. 텔레만의 비올라 협주곡에서 강릉광이 들려준 비올라 다모레 협연, 챔발리스트 태지 다이치(高田泰治)의 바흐의 챔발로 협주곡과 이탈리아 협주곡에서 보여준 협연과 솔로,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의 아사키 사키노(浅井咲乃) 등의 연주는 완벽한 호흡과 절제된 조화, 세련되고 잘 준비된 연주의 전형이었다.

부산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바이올리니스트 이에별은 바흐의 협주곡 제2번을 연주했다. 그녀가 쌓아온 화려하고 다채로운 커리어처럼 연주는 아름답고 기교도 스마트했다. 그녀와 텔레만 앙상블의 대화도 정겨웠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오랜 세월 시대연주에 천착해 온 텔레만 앙상블은 이 작품에서도 역시 비브라토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별은 현시대 다른 연주자들처럼 비브라토를 사용함으로써 그녀에게 시대연주적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던 마니아들에게는 아쉬움을 주었다. 시대연주 특성에 대한 각별한 준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이 연주회를 챔버 홀에서 했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시대악기는 작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제 소리를 울려야 제 맛이 난다는 시대연주의 특성을 고려했어야 했다.

철학을 품은 클래식 노자와 베토벤 - '히로애락'



◆ 김윤선 음악평론가

클래식 음악과 동양철학의 만남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를 일상의 고민해결과 마음의 치유, 공감의 시간을 만들어낸 '노자와 베토벤' 시리즈 '희·로·애·락'이 4회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17년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야심찬 기획으로 마련한 '노자와 베토벤'은 그 제목만큼이나 신선하고 창의적인 시도로 대중에게 회자되었다. 부산의 대표 민간 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진지하고 따분하다고 오해하는 철학을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시켜주는 최진석 교수가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대중들에게는 신선함 그 자체였다. 이 기획은 듣는 철학, 생각하며 느끼는 음악, 동서양의 사유와 음악의 만남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호기심을 자극했던 이 공연은 내공이 총만한 두 거장의 완벽한 호흡으로 삶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행복과 고민을 철학적 시선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음악으로 이해시키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희·로·애·락'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기쁨에 이르고, 분노로 인해 창의적 발전에 이르며, 슬픔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삼자가 되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도전 의식을 찾고, 최종적으로 자신 스스로 즐기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다. 이 네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세상과 관계에서 주도권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바로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초월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일상의 히로애락에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공연에서 '희(喜)'는 노자의 도덕경을 바탕으로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기쁨을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과 영웅교향곡, 슈만의 서곡, 스케르초와 피날레와 교향곡 3번 라인이 연주되었

다. 두 번째 공연 비극적 '노(怒)'의 레퍼토리로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와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은 인간 내면에 일렁이는 분노로 인해 일상을 깨우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형상에서 비극적 음악이 주는 효과를 훌륭히 선보였다. 세 번째 공연 '애(哀)'에서는 애잔하고 쓸쓸한 감동의 베토벤 교향곡 7번,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차이콥스키 교향곡 '비창' 등을 연주했는데 연주를 통해 슬픔을 도외시하지 않고 진실한 슬픔을 관조하는 음악을 선보이며 객관적으로 슬픔을 창조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곡가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 '락(樂)'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 엘가의 위풍당당행진곡,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으로 내적 즐거움과 음악적 환희와 희열을 청각적으로 생산한 레퍼토리들을 연주했다. 예술감독 오충근과 최진석 교수,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두 사람에게 공통보인 음악활동은 궁극적 목적 자체가 '가장 높은 단계로서의 인간을 완성하는 길'이며 인간의 완성과 우리의 생존에 관련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최진석 교수는 진정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예술적 경지를 깨닫는 베토벤과 같은 성숙된 인간이 될 것을 주문한다. 철학을 품은 클래식, 노자와 베토벤은 중앙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주변부가 아닌 독자적이며 품격을 높이고 기백 있는 부산만의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음악을 사유하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와 철학으로 음악을 채우는 예술감독 오충근의 우리 지역 창의적 브랜드 '2018 노자와 베토벤'의 색다른 기획을 기대해 본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일 시 9월 13일(수)-12월 31일(일) 화-금요일
오전 11:00,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월요일 휴관) 사량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4인 가족 이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및 태그 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60% 할인 ※당일 현장에서 증빙서류 미지참 시 차액 지불 SNS할인시 현장에서 모바일 확인 후 입장가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량채극장' 개관을 기념해 마련하는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EBS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경찰차 폴리과 합선 소방차 로이, 영리한 구급차 엠버, 재빠른 헬리콥터 헬리가 팀을 이룬 구조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엔 무대에 오르는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은 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용 뮤지컬로, '뽀뽀뽀뽀 색깔약속!', '땅이 흔들릴 땐? 기억해! 세가지!', '평균아 비켜라! 튼튼이가 나가신다!' 등 세 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진안전, 생활안전에 대해 알려준다.

2017 부산오페라 WEEK
부산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일 시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오페라단 644-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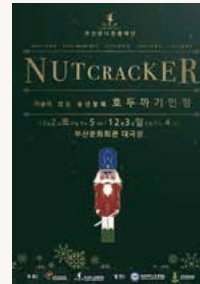


2021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7 부산오페라 WEEK' 일환으로 열리는 부산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이번 무대는 유명 오페라 작곡가들의 작품을 집중 조명해보는 무대로, 오페라 연출가 김성경의 연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봉미의 지휘로 성악가 김유선, 김재형, 김경, 박대용, 양승모, 김지호, 김경희, 나현규, 김아를 등 국내 정상급 오페라 가수과 UKO오케스트라, 부산오페라합창단이 출연,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안드레아 세니에', '카르멘', '투란도트' 등 명작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유니온발레단 마술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일 시 12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3일 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환상적인 이야기와 낭만적인 명곡들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유니온발레단의 마술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이번 무대에서는 기존 고전발레의 틀을 깨고 마술사 이광기의 신비한 마술과 벨리댄스, 댄스스포츠, 힙합 등 새로운 안무의 '호두까기 인형'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특히 2012년 스페인 국립무용단에 입단, 현재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는 김세연과 그녀의 파트너인 스페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에스테반 벨리가 그리고 유니온발레단 솔리스트로 있는 한상이, 단원 이승민 등 실력있는 무용수들이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1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일 시 12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마련되는 부산청소년합창제 2017년 무대.

참가단체

- 기장리틀싱어즈(지휘/김재영, 반주/김옥희)
- 부산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철수, 반주/류희은)
- 부산시하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엄현섭, 반주/이은혜)
- 부산진구리운소년소녀합창단(지휘/홍지형, 반주/박솔희)
- 연지초등학교합창단(지휘/고희영, 반주/안태성)
- 이시벨중학교로즈합창단(지휘/김민정, 반주/서소이)
- 정관소년소녀합창단(지휘/차은희, 반주/도미혜)
- 정관초등학교합창단(지휘/장윤선, 반주/임혜진)
- 창신초등학교합창단(지휘/배수경, 반주/이영주)
- 해원초등학교합창단(지휘/김복경, 반주/이지영)
- CTS부산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민지, 반주/박지환)
- KBS부산어린이합창단(지휘/김태호, 반주/오은영)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륜, 반주/이영옥)

● 특별출연/동주원드오케스트라(지휘/류지원)

원로예술인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일 시 12월 4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이자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전문예술법인 이자무스 오페라단이 원로 예술인과 함께 마련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지휘자 정금려가 지휘하는 인코리안 심포니의 연주로, 테너 박호송, 한남식, 서철수, 김성록, 강학운, 서명보, 바리톤 한정현, 소프라노 김혜경, 양근화, 김민성, 최선우, 메조소프라노 전연숙이 주옥같은 아리아와 2중창, 이태리 칸초체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이중창'
- 팔보/그대에게 내 말을 전해주게
-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 베리드/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비네라' 등 수록

● 기획, 연출/손욱

2017 부산오페라 WEEK
솔오페라단 오페라 라 보엠 in Concert

일 시 1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솔오페라단 1544-9373



지난해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오페라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솔오페라단이 선보이는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은 파리 뒷골목 가난한 예술가들의 일상을 소재로 젊은 날의 사랑과 열정, 고뇌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의 무대를 그려내고 있다.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박지운이 지휘하고 주인공 미미 역의 소프라노 김성은을 비롯해 박은주, 김동원, 한명원, 우주호, 박준혁, 이세영 등 세계 무대를 빛낸 오페라 가수들과 김해시립합창단, 부산오페라심포니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주옥같은 아리아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Program Guide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31~5



지난 1994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과 문화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온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단장 성광수)의 21번째 정기연주회.

미루샘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아시아게임 기념행사공연, 부산-후쿠오카 교류음악회, 사회복지시설 방문공연 등 공연활동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 한성훈/아름다운 이 밤에, 별이 되어 남은 사랑
중국민요/모리화
김방표/편곡/어느 여름밤
송창식/푸르른 날, 담배가게 아가씨, 우리는 등 수곡
- 지휘/한정현
 - 피아노/최승희
 - 찬조출연/프리모칸탄테 남성중창단, 클레즈 트리오

제8회 소프라노 조신미 독창회

일 시 1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예술가극 010-3884-4623



경성대학교와 효성가톨릭대 음악대학원, 동서대학교 선교음악대학 피아노과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현재 다올림합창단 지휘자, 범일살롱중창단 지휘자, 조신미 성악아카데미와 부산예술가극 대표로 있는 소프라노 조신미 독창회.

조신미는 그동안 7차례 독창회를 비롯해 오페라 주역, 오케스트라 협연, 금정수요음악회, 부산국립과학관 초청연주, 서울 영산아트홀, 서울 꿈의숲아트홀, 강남시니어돌체아트홀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 황덕식/애모
이안삼/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김성희/홍목련
푸치니/오페라 '라 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
카탈라니/오페라 '라 율리' 중 '나 이제 멀리 떠나리'
등 수곡
- 특별출연/부산예술가극중창
 - 피아노/안준희

무지카비바 제27회 정기연주회 바로크&레이디가가

일 시 12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지난 1998년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실내악단 무지카비바가 마련하는 송년무대.

창단 이후 실내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성의 연주로 바로크 음악에서부터 고전, 낭만, 현대음악, 재즈, 탱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는 무지카비바는 이번 무대에서 바로크 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 크리스마스 캐롤 등으로 저물어가는 송년의 아쉬움을 달랜다.

- 리더/박경희 ● 지휘/박성완
- 바이올린/홍기정, 우소라, 김신실, 오근영, 최은혜, 안은택, 고아라, 서은아
- 비올라/박주연, 강수이, 하정은
- 첼로/전명희, 심어라, 오현진
- 더블베이스/박희철
- 신시사이저/신유진 ● 타악기/김영훈

나예지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2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나예지 010-5646-2153



연세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파피디움대 석사과정,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나예지 귀국 독주회.

일찍이 국내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나예지는 유학시절 The Schubert Club Music Competition 1위, The International Young Artist Piano Competition 2위, The Baltimore Music Club Competition 2위에 입상하며 워싱턴D.C 케네디센터와 America University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가졌다. 나예지는 지난 8월 귀국 후 부산예중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과 함께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프로그램

- 하이든/소나타 바장조 Hob.XVI:23
리스트/베네치아와 니콜리 S:162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제6번 가장조 작품 82

부산진구남성합창단 창단 5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진구청 문화관광체육과 605-4631



부산진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성들로 결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인 부산진구남성합창단의 창단 5주년 기념음악회.

지난 2013년 전국 유일의 구청 소속 남성합창단으로 첫 발을 내딛은 부산진구남성합창단은 그해 10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3차례 정기연주회와 부산진구청 주최 '숲속 작은음악회', '10월의 마지막 밤 음악회', 행정안전부 주최 '생명안전존중 토크콘서트', 울산합창경연대회, 부산은행 5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강경원
- 반주/주은정
- 사회/문혜진
- 찬조출연/소프라노 구민영, 부산오퍼스피리 오케스트라,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제4회 앙상블 A-ri 정기연주회 책 읽어주는 음악회 '어린왕자'

일 시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앙상블 A-ri 010-4666-6268



피아니스트 강인경, 조은주, 류상경, 바이올리니스트 조나영, 이미원, 첼리스트 황승희, 홍영준, 플루티스트 공유현 등 실력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앙상블 A-ri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4년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앙상블 A-ri는 '책 읽어주는 음악회'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드뷔시, 존 루터, 멘델스존, 무소르그스키, 드보르작의 작품으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린왕자'의 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 드뷔시/달빛
존 루터/고풍 모음곡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제1번 2악장, 4악장
무소르그스키/6개의 전주곡 작품 6 등
- 사회/아나운서 박시현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2017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소프라노 신정순, 배제선,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테너 노성훈, 바리톤 고봉수가 마련하는 2017 송년음악회. 저물어가는 2017년을 아쉬워하며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외 가곡을 비롯해 오페라 아리아, 드라마 OST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신정순, 배제선
- 메조소프라노/손혜은
- 테너/노성훈
- 바리톤/고봉수
- 특별출연/조현미(바이올린), 고충진(클래식기타), 부산여성문화회관 가곡중창단
- 피아노/권선경, 김아영

런던 길드홀음악원 초청 바비칸센터 독주회 기념 피아니스트 백민정 초청 독주회

일 시 12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포르테아트매니지먼트 010-7120-1145



'내면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수성, 뛰어난 테크닉이 어우러진 연주라는 찬사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백민정 초청 독주회. 세계적인 권위의 이태리 아모라피아노아카데미(아티스트 디플롬)와 영국의 명문 런던 길드홀 음악원에서 전액장학생

으로 석사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백민정은 그동안 Worshipful Company of Musicians 금메달 수상, 2012 유럽 베토벤 소사이어티 국제콩쿠르, Ernesto Falla 국제콩쿠르, Nuovi Orizzonti 국제콩쿠르, 라흐마니노프 국제콩쿠르 등에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백민정은 오는 12월 런던 바비칸센터 초청 독주회를 앞두고 있다.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8번 다단조 작품 13 '비창'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2번 다단조 작품 111
리스트/피아노 소나타 다단조 S.178

2017 부산오페라 WEEK
그랜드오페라단 송년 오페레타 박쥐

일 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7:30,
10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솔오페라단(544-9373)



'2017 부산오페라 WEEK'의 마지막 작품으로 선보이는 그랜드오페라단 송년 오페레타 '박쥐'. 왈츠의 황제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남긴 '빈 오페레타'의 걸작인 '박쥐'는 화려한 춤과 음악, 유쾌하면서도 옥자지결한 분위기, 유티 넘치는

대사들로 매년 연말 송년무대를 장식해오고 있다. 독일 오스나브뤽오페라극장의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자인 안드레아스 호츨을 초청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마스카니 국제성악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소프라노 박현정을 비롯해 테너 이은민, 김준연, 바리톤 최강지, 윤오건 등 국내 최고 오페라 주역들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위너오페라합창단, 청성북발레단이 출연. 춤과 노래, 연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오페레타만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러시아음악연구회 제8회 정기연주회
러시아 음악의 밤

일 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러시아음악연구회 010-5702-1225



지난 2014년 러시아의 국립음악대학에서 수학한 부산의 음악인들로 결성된 부산러시아음악연구회의 8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러시아 음악을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물들을 다양한 음악장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부산러시아음악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아렌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프로그램**
아렌스키/4손을 위한 모음곡 제1번 작품 15
림스키 코르사코프/오페라 '눈의 요정' 중 '위대한 왕이시여'
차이콥스키/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등 수곡
- 소프라노/박미경, 서유희, 조희정, 허영은
 - 베이스/박기범 ● 피아노/김유진, 이수진

최영식 비올라 독주회

일 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예술기획 010-4909-7444



한양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상북도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최영식 독주회.

KBS교향악단 객원단원, 서울바로크합주단 객원단원,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독일윈스터교향악단 계약단원, 마산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 진주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창원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을 역임한 바 있는 최영식은 그동안 경상북도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챔버오케스트라, UKO, 뉴프라이오케스트라, 김해신포니에타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 피아노/김영실

부산플루트앙상블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부산플루트앙상블
010-4431-3373, 010-9250-3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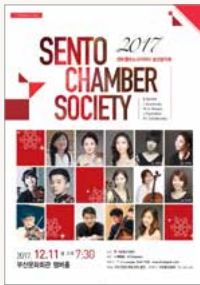
지난 1992년 플루티스트 이하룡, 박찬연, 장극태, 이상창, 조성철이 의기투합해 결성된 후 부산의 대표적인 플루트앙상블로 자리매김한 부산플루트앙상블이 창단 25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현재 플루티스트 박찬연을 리더로 장극태, 정옥경, 조진학, 김명훈, 유주영, 김하나, 장예지, 장정림 등 부산의 중견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플루트앙상블은 1992년 11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기연주회를 비롯 해외초청연주회, 자선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협연/박찬연, 장극태
- 특별출연/부산플루트앙상블(지휘/이하룡)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을 주축으로 젊고 실력있는 연주자로 구성된 센토챔버소사이어티는 바로크에서 현대 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열정이 넘치고 집중력 있는 앙상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불후의 명작 '병사 이야기', 바르톡 '두 대의 바이올린 위한 44개의 이중주곡', 모차르트 '디베르타멘토 제3번 K138', 차이콥스키 '안단테 칸타빌레', 파헬렐의 '개논과 지그'와 더불어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등으로 송년의 분위기를 전해준다.

- 바이올린/이은옥, 서은아, 홍은지, 오근영, 여주현, 성현이, 조우태
- 비올라/이성호, 손주연
- 첼로/서성은, 김다정 ● 더블베이스/윤민우
- 클라리넷/장재혁 ● 피아노/김미현

WonderCello feat-양욱진

일 시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8: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WonderCello 010-3551-6332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이자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양욱진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젊은 첼리스트들로 결성된 WonderCello의 무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2007년 5월

귀국, 꾸준히 젊은 첼리스트들을 양성해온 양욱진 교수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첼리스트들과 공식적으로 출범한 WonderCello는 첼로만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앙상블을 선사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가져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 엘가/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Nimrod)'
-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작품 40
- 브루흐/콜 니드리야 작품 47
- 피아졸라/천사의 죽음 등
- 연주/양욱진, 변은석, 김새로미, 김상지, 이기훈, 조문경, 윤성민, 유원욱, 김소이, 김한솔, 이슬, 임다영, 최주원, 정유화, 김소영

부산시립극단 제60회 정기공연 사랑 공감 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

일 시 12월 14일(목)-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열정과 꿈만으로도 행복했던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그 시절 시대적 향수를 불러일으킬 부산시립극단 사랑 공감 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12월 1일 새롭게 재개관하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개관 기념공연으로 선보이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지난해 12월 제57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지난 1970년대 부산의 영도와 을숙도를 배경으로 시대적 아픔과 사랑을 그려낸 작품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익숙한 음악들과 빠른 무대변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 예술감독, 연출/곽종필 ● 극작/오은희
- 출연/전성환, 정마린, 이현주, 황장기, 김은희, 이혁우, 염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배기철 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레베카'

일 시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7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서스펜스 뮤지컬 '레베카'. '감동적인 로맨스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서스펜스'라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낸 뮤지컬 '레베카'는 지난 2013년 초연무대부터 2014년, 2016년 무대에 오를 때마다 '레베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댄버스' 역의 신영숙, 유주현을 비롯해 막심 드 윈터 역의 민영기, 정성화, 송창의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노래와 연기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테너 김충희 독창회

일 시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풍부한 성량과 부드러운 감성의 소유자 테너 김충희 독창회.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김충희는 독일 라 보체 가곡 콩쿠르, 뉘른베르크 한스 작스 콩쿠르, 스위스 오페라 카르멘 콩쿠르 등에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6년 그리스 사이프러스 모차르트 페스티벌에서 '마술피리'의 타미모 역으로 유럽 무대에 데뷔한 후 700회 이상의 오페라 무대에 서며 명성을 쌓은 김충희는 2014년 독일 튜링겐 주 최고의 예술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충희는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바리톤/한명원 ● 피아노/박미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피스트 광정의 하프 이야기

일 시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천상의 악기 하프로 전하는 따뜻한 음악이야기 '하프이야기'. 세계적인 하피스트 광정과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하프 전문연주단체인 하피데이앙상블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최진우가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는 아름다운 음색과 우아함을 지닌 하프 연주로 색다른 송년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하프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지는 존 토마스의 '캠브리아(Cambria)'를 비롯해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멘시니 '문리버', 파헬렐 '개논', 헨스-코넬트 '바로크 플라멩고', 비발디 '사계' 중 '겨울'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하프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Life Music

일 시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 010-5165-5363



지난 2006년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음악을 통한 삶의 작은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 창단한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의 5번째 정기연주회. 매주 토요일 정기합주를 통해 단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연주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오아시스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음악나눔 봉사연주회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음악을 통한 사랑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R 슈트라우스/교향시 '차리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그/페르귤트 모음곡 제1번, 제2번
무소그르스키/전람회의 그림 중 'Promenade' 등

이유현 피아노 리사이틀

The Last Piano Sonatas of Franz Schubert

일 시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theYoon 010-9025-2012



부산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독일민헨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유현 독주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강사를 역임한 바 있는 이유현은 현재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신화예술중·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The Last Piano Sonatas of Franz Schubert'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아노 소나타 D. 959, D. 960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가장조 D.959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내림나장조 D.960

피아니스트 김지민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김지민 010-7442-7627



신라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지민 독주회. 지난 2003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 독주회를 통해 피아노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연주활동을

가져온 김지민은 벨리시미 중창단, 소프라노 박현정, 테너 장원상, 이은민 독창회 등 성악반주와 독주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경남피아노듀오협회, 부산음악협회, 신라뮤즈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김지민은 현재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한타지 라단조 KV.397
베토벤/소나타 제21번 다장조 작품 53
슈만/환상소품 작품 111
리스트/솔레의 해 2년' 중 '단테 소나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며 화려한 금관 앙상블 연주와 세 명의 테너가 들려주는 오페라 아리아로 송년의 흥겨움을 선사해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송년음악회'. 수석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우수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들과 미국, 유럽에서 활동 중인 솔리스트 및 브라스 연주자들로 구성된 솔루스 금관 5중주의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연주와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허동권, 양승연, 장지현이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민요 등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교향단에서는 보지 못했던 대규모 편성으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송년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비제/오페라 '카르멘' 서곡
쿠치어/금관 5중주와 오케스트라 3악장
포트/이베리아 라틴계의 소품 1악장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도니체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흘리는 눈물'
레하르/오페라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한국민요/거문도 뱃노래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차이콥스키/백조의 호수 모음곡

- 지휘/김봉미
- 협연/솔루스 금관 5중주, 테너 허동권, 양승연, 장지현



KBS부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KBS부산어린이합창단 010-5533-7706



지난 1955년 방송을 통한 새로운 동요의 발굴과 보급에 힘쓴 KBS부산어린이합창단이 창립 64주년을 맞아 마련한 정기연주회.

4학년 이상의 초등학생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 54명으로 구성된 KBS부산어린이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일본 후쿠오카 한·일 수니어 뮤직페스티벌, KBS부산창작동요대회, KBS부산청소년 합창제, 한국합창제, 부산청소년합창제, 을숙도소년 소녀합창제, KBS어린이합창단 교류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송년을 맞아 동요와 가곡, 캐롤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KBS부산어린이합창단 학부모들의 난타공연과 해운대여성합창단, 재즈퀸트 라리의 특별무대가 함께 펼쳐진다.

- 지휘/김태호 ● 반주/오은영 ● 안무/함주현

2017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일 시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공연기획사 '부산문화'가 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의미를 담아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이번 무대에서는 2015 제15회 오사카 국제콩쿠르 Espoir prize, 2014 제7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클래식타임즈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김소을, 한국 최초의 파페라 카스트라토 정세훈, 뮤지컬 '레 미제라블', '울숙업' 등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이하경, 가수 최성수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 가요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뮤지컬 '레 미제라블' 중 'I Dreamed a Dream', The girl in 14g(크리스틴 체노웬스 곡),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투나잇',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마법의 성, 아베마리아, 동행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4회 정기연주회 송년 국악레전드 콘서트

일 시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2017년을 마무리하며 신명 넘치는 우리 음악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4회 정기연주회 '송년 국악레전드 콘서트'.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계의 아이돌' 소리꾼 남상일과 MBC 관현악단, 경기도립팝스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은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드미트리 카렌코프, 경성도민요보존회 대표 최윤영,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패가 출연,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백성기/장과 관현악을 위한 '청장격려(淸壯激勵)' 신희준(박위철 편곡)/관현악과 국악가요 '큰애기 반뚱짐, 배치기'
홍멜(박위철 편곡)/트럼펫 협주곡 3악장
김성겸(편곡)/동부민요연곡 '상주아리랑,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
안현정/탱고협주곡 'Dance of moonlight' 등

2017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일 시 12월 21일-22일 목-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4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문의 (주)피엠씨프로덕션 1577-7627



세계가 인정하고 극찬한 난타벌 퍼포먼스 '난타' 2017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지난 1997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2014년 12월 국내 최초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현재까지 누적관객 수 1,300만 명을 달성한 '난타'는 1999년 해외 첫 데뷔무대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은 후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일본,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호주 등 해외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2004년 아시아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바 있다.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일상 속 공간인 주방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코믹하게 그린 '난타'는 주방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되어 빛나는 화려한 연주와 깜짝 전통혼례, 관객과 함께하는 만두 썰기, 한국 전통춤과 가락이 어우러지는 삼고무, 파워풀한 드럼연주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5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69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17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는 '2017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매년 베토벤 교향곡 '합창'을 공연하며 부산의 대표적인 송년무대로 사랑받아온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신동원, 베이스 전승현이 솔리스트로 출연, '합창'으로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하이든/교향곡 제45번 '교별' 4악장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앙상블 The Feliz : The End가 아닌 The And

일 시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8: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앙상블 더 펠리츠 010-5188-7710



미국 신시내티움대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 구성된 앙상블 더 펠리츠의 무대, '행복'을 뜻하는 스페인어 'Feliz처럼'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이름 붙인 앙상블 더 펠리츠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작품을 발굴, 연주하거나 피아노곡을 바이올린곡으로 편곡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왔다.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예술적인 도전과 역량을 쌓고 있는 앙상블 더 펠리츠는 정통 클래식 무대뿐 아니라 직접 관객들을 찾아가 연주하면서 음악을 통한 소통과 행복을 이웃과 나누고 있다.

라무지가 앙상블 정기 연주회

일 시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라무지가 앙상블 010-4560-5322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하고 흥미로운 무대를 꾸준히 열어온 라무지가 앙상블 정기연주회. 매년 작곡가 시리즈 등 다양한 기획과 대중적인 무대로 관객의 큰 호응을 받아온 라무지가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모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과 양경아,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부수석 우소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부수석 이성호,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부수석 김판수, 창원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진성이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왈츠와 발레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드보르작/세레나데 작품 22 중 '왈츠' 등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0회 정기연주회
**플라잉과 함께 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일 시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3170~1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선사하는 온 가족을 위한 음악선물 '플라잉과 함께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수석지휘자 이근륜이 지휘하고 부산진구라운소년소녀합창단, 울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남순천, 김태우, 뮤지컬 앙상블 '라라밴드', 소프라노 김리라 그리고 난버벌 퍼포먼스팀 '플라잉'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최고의 합창음악 작곡가 중 한 사람인 벤자민 브리튼이 작곡한 '캐롤의 제전'을 시작으로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합창무대로 재미와 즐거움,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신라시대의 화랑과 도깨비를 모티브로 구성된 난버벌 퍼포먼스 '플라잉'으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간 동안 12만 관객들의 호평을 받

으며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했던 (주)페르소나 플라잉 팀 왕지옌(화랑), 제리개(도깨비)가 출연. 연주팀과 함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놀라운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프로그램
'캐롤의 제전' 중 입장 행렬(Procession), 오라 하늘의 왕이여(Wolcum Yole), 자장가(Balulalow), 이 어린 아기(This little Babe)벤자민 브리튼 곡, Christmas Festival, 도깨비와 음악, I Dreaming of White Christmas, Christmas at the Movie, The Prayer, Conte Partiro(Time to say goodbye), 크리스마스 메들리(이현철 편곡) 등

- 지휘/이근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협연/부산진구라운소년소녀합창단, 울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남순천, 김태우, 뮤지컬 앙상블 '라라밴드', 소프라노 김리라, 난버벌 퍼포먼스팀 '플라잉'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전국투어 콘서트 : 클래식**

일 시 12월 24일~25일 일-월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7년 크로스오버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포르테 디 콰트로 부산콘서트.

JTBC의 클래식 크로스오버 오디션 프로그램인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으로 데뷔한 포르테 디 콰트로는 테너 김현수와 베이스 손태진, 뮤지컬배

우 고훈정 그리고 '팬텀싱어'가 발굴한 신예 이버리로 구성되어 있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4명의 힘' 또는 '4중창의 파워'를 뜻하는 말.

지난 11월 출범된 두 번째 음반 '클라시카' 발매를 기념해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지휘봉을 잡은 지휘자 김덕기가 지휘하는 코리아 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아컴퍼니 챔버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
'한겨울 밤의 크리스마스'**

일 시 12월 24일 일요일 오후 5:30 챔버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A.Company 010-5246-5651

피아니스트 성아람, 김도희, 바이올리니스트 안은택, 첼리스트 이경성으로 구성된 아컴퍼니 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러시아어로 앙상블을 뜻하는 'Ансамбль'와 '동행하다', '피아노 반주를 해주다'의 뜻을 지닌 'Accompany'를 합쳐 만든 아컴퍼니(A.Company) 챔버앙상블은 지난 4월 창단연주회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 오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한겨울 밤의 크리스마스'라는 부제로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으로 크리스마스와 송년을 맞는 즐거움을 아름다운 앙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프로그램

피아졸라(L. Rössler 편곡)/오블리비언
피아졸라(J. Bragato 편곡)/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HY_CHO(편곡)/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 해설/유지훈(클라리네티스트)

2017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주)문화드림 933-9923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들로 구성된 부산나눔플루트소사이어티가 마련하는 2017년 송년음악회.

지난 2012년 창단연주회 이후 매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음악회를 통해 음악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온 부산나눔플루트소사이어티는 아시아 플루트 연맹, 일본 플루트 컨벤션에도 초청받아 해외교류 연주도 가져오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소현&손준호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일 시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KBS 2TV '불후의 명곡', SBS '오 마이 베이비' 등 방송을 통해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뮤지컬배우 부부인 김소현, 손준호가 다시다나왔던 2017년을 떠나보내며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송년무대.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

디', 'Crazy for you', '돈키호테', '노트랑담의 파리', '지킬&하이드' 등 유명 뮤지컬 넘버를 비롯 TV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향수', '사랑의 찬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 2002년 창단된 후 뮤지컬 음악과 팝스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해온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갈라팀 'The Muse'가 함께 출연하며, 한편의 대형 뮤지컬을 관람하는 듯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정과정(鄭瓜亭)

일 시 12월 27일-28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
회원 5천원 할인)
문의 극단 바문사 554-8209



2017 부산 브랜드 콘텐
츠로 선정된 극단 바다
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
람들(극단 바문사)의 창
작극 '정과정(鄭瓜亭)'.
작가가 알려진 유일한 우
리말 고려가요인 '정과정
곡'은 오늘날 가사는 전
해지나 그 곡조는 전해
지지 않고 있다.

극단 바문사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역사 속 정
과정곡을 현대적 국악으로 탄생시킨 '정과정'은 부산
의 역사와 전통을 예술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연극과
음악, 미디어 파사드를 결합한 새로운 무대연출로 관
객들과 만난다.

- 작, 연출/최은영
- 지휘/이정필 ● 작곡/백규진
- 연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7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일 시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부산일보사 461-4437~8



부산, 경남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
76명이 들려주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 2017년 무대.
매년 12월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한 무대에 서온 부
산솔리스트앙상블은 그동안 가곡, 오페라합창곡에서
부터 성가, 민요에 이르기까지 남성 특유의 웅장한 하
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의정부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로 있는 민인기가 지휘하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201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정된 바리톤 김
성길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삶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
고 국내외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합창곡, 종교 합창곡,
창작 합창곡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
가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 회장/김길수 ● 피아노/인선애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II 금난새&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 시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
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불멸의 악성(樂聖) 베토
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
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2018 베토벤 심포
니 사이클' 세 번째 무대.
송년을 맞아 고전음악
에서 최고의 역작이라
불리는 베토벤의 교향
곡 9번 '합창'을 들려주
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
휘자 금난새가 지휘하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
라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김유진, 메조소프라노 박소
연,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태경 그리고 부산지역 성
악가들로 구성된 부산연합합창단이 출연, 깊은 감동
의 무대를 선사한다.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은 곡 속에 담긴 자신과 밖에
정신으로 헨델의 '메시아'와 더불어 매년 송년음악회
의 주요 레퍼토리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동국예술기획 창립 28주년 기념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96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일 시 12월 29일-30일 금-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3만원
문의 동국예술기획 010-4762-4333



전통의 원형보존과 전승
이라는 핵심가치를 기반
으로 전통춤과 소리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
을 무대 위에서 승화시
켜온 한국의 명인명무전
2017년 무대.

지난 1990년 11월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첫 무대
를 가진 후 올해로 96회
를 맞는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그동안 조선시대의 마
지막 무동 **故 김진홍** 선생을 비롯해 판소리 명창 **故**
박동진 선생, 명무 **故 김계화**, **이매방** 선생, 일인창무
극 **故 공옥진** 선생, 배뱅이굿 **故 이은관** 선생, 여창
가곡 **故 김월하** 선생, 가야금병창 **故 박귀희** 선생 등
1,500여 명의 명인들이 무대에 서왔다. 특히 '명인명무
전'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를 비롯해 일
본, 중국, 몽골,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공연되며 우리 전

통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려오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은허튼춤의 인간문화재 **김진홍**,
원향살풀이춤의 인간문화재 엄옥자 선생을 비롯해 원
로, 중견무용가들이 출연, 동국예술기획 대표 박동국
의 해설로 잊지 못할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29일 프로그램

기원무(한애영·이매방류살풀이춤 이수자)
영남입춤(강미선·강미선무용단 총결 대표)
장고춤(김태덕·창원 대산고등학교 교사)
교방살풀이춤(정형숙·정형숙무용단 단장)
전주부채춤(장인숙·호남살풀이춤 보존회 회장)
예기무(김현옥·창원대학교 외래교수)
진도복춤(이용희·성균대학교 철학박사)
원향지무(변지연·대통령상 수상)
동래허튼춤(박성호·동래한량춤 전수교육 조교)

30일 프로그램

승무(오은희·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천수바라춤(일공소님·동국대학교 교수)
교방검무(김진옥·영지대학교 객원교수)
호남산조춤(이길주·인간문화재)
한영속류태평무(박재희·청주대학교 명예교수)
원향살풀이춤(엄옥자·인간문화재)
예기무(김광숙·인간문화재)
부은허튼춤(김진홍·인간문화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제야음악회

일 시 12월 31일 일요일 오후 10: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
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7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8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7년
제야음악회.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강석희가 지휘하
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마련되는 2017
제야음악회에서는 부산
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바리톤 서정학,
소프라노 박지현, 오보이스트 이윤정, 팡페라콰르텟
디에스가 출연, 2017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2부에 앞서 휴식시간에 마련되는 로비콘서트에서는
베이스리스트 박동화, 피아니스트 SUNNY, 드러머 허
준영으로 구성된 클래식 재즈 트리오의 경쾌한 재
즈 연주가 펼쳐진다.

음악 | Music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통합기념
시민뜨락축제

일 시 11월 3일(금)~12월 15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우천시 취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3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한 야외무대 '시민뜨락축제'.

지난 10월,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통합기념으로 마련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시민뜨락축제'는 12월 15

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근 직장인들과 주민들, 상인들을 위한 소통의 무대로 펼쳐진다.

1일 파워넘치는 관악양상블의 연주가 돋보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의 연주에 이어 8일에는 지난해 창단된 후 다수 무대를 통해 활동해오고 있는 전문 여성합창단 'JOY합창단', 15일에는 강변가요제 수상팀인 '바다새' 출신의 가수 김혜정이 관객과 만난다.

일정

12월 1일(금)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12월 8일(금) JOY합창단

12월 15일(금) '바다새' 김혜정

공혜영 가야금 프로젝트
Blissful 더 없이 행복한

일 시 12월 4일 월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공혜영 010-9308-6171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주자 공혜영의 두 번째 프로젝트 무대.

공혜영은 진구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했

으며,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사, 지구촌고등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에 너무 얽매이거나 무조건 트렌드만 쫓는 것이 아닌,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잇는 시도에 대한 음악적 고민을 가져온 공혜영은 이번 무대에서 우리 음악과 장단이 가진 다이내믹함과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색깔로 작·편곡한 연주를 통해 심어송라이터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소프라노 구현진 독창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일 시 1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구현진 010-2676-7884



강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소리로 특유의 깊은 감성을 보여주는 소프라노 구현진 독창회. 경희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 디플로마(Diploma) 과정, G.B.Viotti(Vercelli) 아카데미 오페라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유학 시절, Giovanni Talenti 콩쿠르 3위, Citta di Racconigi 국제콩쿠르 3위, Italian Festival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각종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구현진은 귀국 후 부산에서 오페라 '모세'로 데뷔한 후 오페라 가수 외에도 현재 이태리 음악연구회, 국제성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현진은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최영민
- 바리톤/박요섭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27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6일(630회) 이지연&김해리 듀오 리사이틀



부산예고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연과 피아니스트 김해리의 듀오 무대.

이지연은 독일 쾰른국립음대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프랑스 Moulin d'Ande 국제콩쿠르, 이태리 Corato 국제콩쿠르, 일본 오사카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김해리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 독도, 만하임국립음대에서 최고점으로 졸업하며 음악코치전공을 수료했으며, 현재 Ez 앙상블, 앙상블 Pasion, 피아노 플러스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8번 차이콥스키/동키 작품 59 단단조

라벨/저간느

모레/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13일(631회) 인타폴(InfTaFal) 제3회 정기연주회 음악감독 박용갑을 비롯해 박병진, 조용성, 김세연, 전수진, 박송희, 이충원, 이지민, 김희원, 강동혁 등 타악주자들로 결성된 '인타폴(InfTaFal)'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로,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타악기 앙상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 협연/박하은, 하경윤
- 게스트/김보경 ● 피아노/서보름

20일(632회) 피아니스트 박정남, 베이스바리톤 최현욱의 두 번째 연가곡 이야기



독일 하이델베르크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외래교수,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회원, 부산피아노듀오협회, 경남피아노듀오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박정남과 영남대학교 성악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

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원 외래교수, 울산 솔리데오글로리아합창단 지휘자,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베이스 바리톤 최현욱의 듀오 무대.

연가곡으로 꾸며지는 두 번째 무대로, 슈만의 '시인의 사랑' 전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전숙영(피아노)

제20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 차세대 음악가와 함께하는
협주곡의 향연

일 시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010-3830-1636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부산의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신예 연주자들을 발굴해 연주무대를 제공하는 '부산 차세대 음악가와 함께하는 협주곡의 향연'. 지난 2007년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진 손영규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음악인들로 결성된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참신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돈조반니' 서곡 비탈리/사촌느 사단조

라이네케/플루트 협주곡 라장조 작품 283 등

- 지휘/손영규(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손동욱(바이올린, 동래초등 2학년), 신유정(플루트, 브니엘초 2학년), 박해린(성악, 부산예고 3학년), 오유진(바이올린, 경성대 2학년), 백유정(피아노, 동의대 3학년)

예그리나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겨울언덕의 야상곡

일 시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예그리나합창단 010-2546-2000



현직에서 은퇴하고 합창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혼성 4부 실버합창단인 예그리나합창단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2014년 10월 국립합창단 이 주관하는 전국골든 에이지합창경연대회 부산대표, 2014년과 2015년 부산합창제에 출연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예그리나합창단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전국환경노래경연대회에서 세 차례 은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10월 열린 올해 대회에서는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우리 가곡 및 가요를 혼성 4부 합창으로 들려준다.

- 지휘/강종철
- 반주/이현숙

부산예술회관 기획 2017 송년음악회

일 시 12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다시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며 마련한 2017 송년음악회. 피아니스트 권경미, 김미정, 김해옥, 첼리스트 김동환, 소프라노 구민영, 팀 특유의 음색이 돋보이는 따뜻한 하모니를 들려주는 JM양상블(바이올린 이라희, 첼로 이재성, 피아노 유영욱, 세대와 나이를 초월한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만난 아우라 목관 5중주(플루트 박찬연, 오보에 박종관, 클라리넷 황윤원, 바순 전만익, 호른 최준호),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대중과 호흡하는 위드유(소프라노 이혜진, 메조소프라노 김윤희, 테너 최원갑, 바리톤 김창준) 등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이 출연,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트리오 레자미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현, 전주교향악단의 첼로 수석 김근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클라리넷 수석 장재혁으로 구성된 트리오 레자미의 3번째 정기연주회.

프랑스어로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뜻을 지닌 '레자미(Les Amis)'는 음악적 열정을 한데 모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음악을 함께 하자는 의지를 담은 이름으로, 지난 2016년 창단 후 매 연주회마다 실험적인 곡들을 구성,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프로그램

쥘스키/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3
무진스키/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작품 26
모차르트/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내림마장조 K.498 '케겔슈타트'

퓨전국악탱고밴드 제나탱고 '한국의 눈' 탱고를 보다

일 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R석(총) 1만원, A석(2층) 5천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있는 '탱고'와 전통국악이 만나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퓨전국악탱고밴드인 제나탱고의 무대. '한국의 눈으로 새롭게 탱고를 바라본다는 뜻을 담아 가장 한국적인 탱고의 모습을 고민하며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탱고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결성된 제나탱고는 이번 무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 전통국악과 탱고음악을 선사한다.

- 대표&보컬/이소연
- 작곡&건반/박경남
- 해금/이승미
- 아쟁/서연주
- 대금/김기욱
- 베이스/김대현
- 타악/유태상

김진희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김진희 010-9928-3733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석사),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진희 독주회.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시온 김진희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울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부산현대음악양상을 단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17번 라단조 작품 31-2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제21번 내림나장조 D 960

영화의전당 12월 마티네콘서트 樂! 樂!! 樂!!! 콘서트 Felice Ensemble 펠리체 앙상블

일 시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즐거움 음악의 향유'라는 가치 아래 지난 2003년 창단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온 펠리체 앙상블이 마련하는 무대로,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선별, 함께 하는 음악회로 송년의 따뜻함과 감동을 나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웅장한 樂, 노래로 함께하는 즐거움 樂, 소프라노와 테너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樂, 테너와 바리톤의 힘찬 樂 등 4가지 테마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국내의 가곡, 오페라 아리아, 영화 OST, 뮤지컬 넘버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2017 두레아움 명품 실내악 시리즈 3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5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지난 2006년 영국 리즈 국제 피아노콩쿠르 최연소 우승자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에 예술영재로 입학, 2008년 졸업 후 영국 국립립음악원에서 지휘 석사과정을 졸업한 김선욱은 2014년 봄머스 심포니와 BBC프롬스 데뷔무대를 비롯해 그동안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프랑스 파리 필하모니, 영국 위그모어홀, 프랑스 리코크 당테롱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공연장에서 연주를 가져왔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가진 바 있는 김선욱은 이번 무대에서 비창, 월광, 열정 등 베토벤 소나타 중 가장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선곡, 베토벤의 본질적 가치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뮤지컬 배우 카이와 MBC성우 김서영이 들려주는
오케스트라 이야기

일 시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3만원 2층 1만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해외 유학파 연주자들과 국내 유수 음악대학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레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클래식에 정통한 뮤지컬 스타 카이와의 협연을 통해 클래식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줄 특별한 무대 '오케스트라 이야기'. 관객들의 삶 속에 파고드는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과 다채롭고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레이크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영화 OST, 뮤지컬 넘버 등 친숙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MBC공채 성우로 2014년 MBC연기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성우 김서영의 해설, 목소리 연기와 더불어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연주감상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 지휘/강호형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일 시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카아트홀
입장료 초대
문의 무지카아트 920-9545



부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차석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엄남이는 그동안 4차례의 독창회를 비롯 금정수요음악회, PBC 초청독창회, 그랜드오페라단 갈라콘서트, YWCA 환경콘서트, 한국 가곡의 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오페라 '마술피리', '밤의 여왕' 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엄남이는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강사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칸타타 제2번 '한숨, 눈물, 슬픔, 근심이며 모차르트/대미사 다단조' 중 '성령으로 나시고' 헨델/오페라 '삼손' 중 '빛나는 세라핌' R 슈트라우스/사랑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등 수곡
● 피아노/이승운

뮤지크바움 실용음악회
재즈의 밤 All That Jazz

일 시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뮤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뮤지크바움 070-7692-0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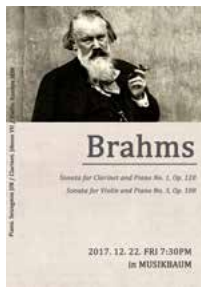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지다미, 베이시스트 임승혁, 드러머 양간식, 색소폰니스트 정준이 함께하는 재즈의 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스탠다드 재즈에서부터 재즈 창작곡 그리고 캐롤송까지 다양한 곡으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랠다.

프로그램
We all dying, Who are you, what a wonderful world, Taking chance on love, Rudolph the red nosed reindeer, Joy to the world, Jjingle bells, Pportrait, Michaelo, Black bird

뮤지크바움 실용 음악회
This Winter, BRAHMS 이 겨울, 브람스

일 시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뮤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뮤지크바움 070-7692-0747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피아니스트 진승민이 브람스 서거 120주기를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베르사이유 국립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College-Conservatory of Music, University of Cincinnati 석사 졸업(MM) 및 동 대학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피아니스트 진승민은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작품 120
브람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번 작품 108

(사)디 첼리스트엔 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사)디 첼리스트엔 앙상블 010-9105-2688



지난 2015년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들로 결성된 부산 최초의 첼로 앙상블 디 첼리스트엔 앙상블의 5번째 정기연주회. '첼리스트엔'은 독일어로 '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첼리스트 정준수를 리더로 최창훈, 신정성, 우리라, 조혜리, 김무니, 오현진, 이민지, 김기량, 김하늘, 박예리나 등 차세대 첼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디 첼리스트엔 앙상블은 지난해 4월과 5월 경주와 부산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해운대문화회관 초청공연,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대구시민회관 첼로기획연주, 경남문화예술회관 로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지난 10월 사단법인단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2017 영화의전당 송년재즈페스티벌 재즈, 그리고 디바

일 시 12월 20일(수)~30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VIP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12/20일 나윤선 콘서트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한해를 보내는 12월,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낭만의 온기를 채워주기 위해 (재)영화의전당이 마련하는 행복한 송년재즈페스티벌 '재즈, 그리고 디바'.

지난해 첫 번째 재즈페스티벌에서 전 공연 매진사례를 나으며 송년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 송년재즈페스티벌 2017년 무대에서는 보다 화려한 라인업으로 저물어가는 2017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20일 나윤선 콘서트 2017 'Christmas in Busan'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 디바 나윤선의 무대로, 4년 만에 발표한 새 음반에 수록된 레퍼토리를 음반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유럽 최고의 연

주자들과 함께 들려준다.
● 연주/프랭크 뵈스테(피아노), 브레드 존스(베이스),
댄 리서(드럼), 토맥 마에르노스키(기타)

25일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GHIBLI, Christmas meets Jazz'
자브리 애니메이션 주제를 재즈로 편곡, 연주하여 발매한 앨범 'Ghibli Meets Jazz'로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 받은 일본의 피아노 트리오 카즈미 타테이시의 무대.
프로그램
여행, 바다가 보이는 거리(마녀 배달부 키키), 언제나 몇 번이라도(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인생의 화전목마(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도로~산책이웃집 토도로) 등 수록
● 연주/타테이시 카즈미(피아노), 사토 시노부(콘트라베이스), 스즈키 마오(드럼)

26일 이소정 With 조윤성, 성민제, Paco 'Musical & Jazz Night'
브로드웨이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주인공으로 데뷔, 고혹적인 보이스와 매력적인 연기, 카리스마로 세련된 무대를 보여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 이소정과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베이시스트 성민제가 함께 하는 무대로, 유명 뮤지컬 넘버 및 팝, 재즈 명곡들을 들려준다.

27일 주현미 'K-Jazz 리브레티'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와 한국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웅이 이끄는 한국 최고 재즈 밴드의 격조 높은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출연/주현미(보컬), 이경우(보컬), 신관웅(피아노),

필윤(드럼), 이종원(색소폰), 하진호(베이스), 신영해(트럼펫)

28일 말로 재즈 콘서트 '겨울, 그리고 봄'
'한국적 재즈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가장 한국적인 보컬로 평가받는 재즈보컬 말로의 무대.
● 출연/말로(보컬), 이명건(피아노), 황이현(기타), 정영준(베이스), 이도현(드럼)

29일 박주원, 엘 까미니포 '집시 & 탱고 in Jazz'
'집시 기타의 마술사' 박주원과 탱고의 본고장 아르헨티나 출신의 하모니카 연주자 최희중, 섬세하고 예리한 감각의 피아니스트 명나영으로 구성된 떠오르는 신예 탱고 듀오 '엘 까미니포'의 열정적인 앙상블 무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 출연/박주원(기타), 최희중(하모니카), 명나영(피아노), 유승철(기타&트럼펫), 고대승(베이스), 박광현(피리선)

30일 울산 '매혹의 재즈 파티 2017'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농염한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웅상의 무대.
2017 송년재즈페스티벌 마지막 무대로, 섬세한 발라드부터 블루스, 펑키, 라틴 등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모든 장르를 웅상만이 가진 특유의 감성과 따뜻한 음색, 훈이 담겨 있는 그녀만의 독특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 출연/웅상(보컬), 민경인(피아노), 칠리정(기타), 황호규(베이스), 이인관(색소폰), 토모아키 칸노(드럼)

고성현과 노래하는 친구들

일 시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5만원, R석 3만원, A석 1만원

문의 우리아트 920-9545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소프라노 노이름,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손혜은 그리고 팬텀싱어즈 시즌2 출연진인 김지원, 안현준, 엄정제, 조휘가 함께하는 '고성현과 노래하는 친구들'.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 밀라노 La Scala 아카데미, 오지모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이태리 푸치니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밀라노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나비부인 국제콩쿠르 1위,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명성을 쌓은 고성현은 그동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세계 유명 극장에서 500여 회가 넘는 오페라 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예술감독/홍지혜 ● 연출/노연정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31회 프롬나드 콘서트 따뜻한 겨울-A Soft Winter

일 시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기업의 릴레이 후원으로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프롬나드 콘서트 12월 무대. 2017년 마지막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황지원의 협연으로 비발디 '사계' 중 '겨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중 '렛잇고' 등 겨울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겨울'
로페즈/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중 '렛잇고' 등 수록

연극 | Play

연극 '맛의 기억'

일 시 11월 3일(금)~12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1:00,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특별한 집밥을 통해 감성을 채워주는 단짠단짠 오감만족 연극 '맛의 기억'.
기억을 잃어버리고 바닷가를 떠돌고 있던 수정 앞에 수수께끼 같은 남자 대현이 나타나고, 맛으로 기억을 찾기위해 부산의 유명 먹거리를 찾아다니던 수정은 대현에게 집밥으로 기억을 찾게 해달라며 조르기 시작하는데... 수정은 과연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연극 '맛의 기억'은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미각, 그 '맛의 기억'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사랑 그리고 잊고 살아왔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전해주다.

● 작, 연출/이민혁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연극 '소물리에'

일 시 11월 14일(화)~12월 3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30, 8:00, 일요일 오후 5:30 (일요일 휴관) 레몬트리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NMD노마드 626-0116



와인과 함께 펼쳐지는 세 개의 사랑이야기 극단 노마드 '소물리에'. 남녀가 함께 마시면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와인의 고장 '부르고뉴(Bourgogne)'의 한 마을에 전해오는 와인에 얽힌 전설과 저주를 소재로, 프랑스 여행 중 우연히 전설의 와인을 마신 한 커플에게 발생하는 지독한 사랑 이야기가 시공을 초월해 2010년대 프랑스와 한국에서 숨 가쁘게 펼쳐진다. '소물리에'는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와인을 마시면서 보는 색다른 작품으로, 감미로운 아코디언 선율과 함께 유럽 구시가의 골목을 여행하는 것 같은 행복한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 작, 연출/이성섭
- 출연/문상준, 박유진, 배문수, 김성욱

연극 ' WONDERFUL TONIGHT'

일 시 12월 1일(금)~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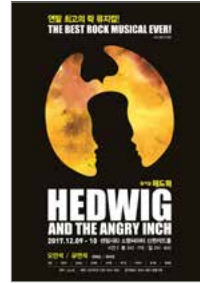


혼자 있기를 바라지만 결국 사람들과 함께일 때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따뜻한 감동과 재미로 풀어낸 창작극 ' WONDERFUL TONIGHT'. 'Lonely'와 ' WONDERFUL TONIGHT'을 합친 말로, 지난 2013년 초연무대를 시작으로 그동안 재미와 감동이 있는 '메이드 인 부산' 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 WONDERFUL TONIGHT'은 동네 어귀에 있는 간편도 없는 허름하지만 정감있는 술집을 배경으로,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공간과 그 속의 사람들 이야기가 '부산'의 색깔을 담아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 작/김영민 ● 연출/구현옥, 김영민
- 출연/김세진, 김학준, 전주협, 김도한, 백상희, 이은주, 김진주, 이대희, 장선아, 권도현

뮤지컬 '헤드윅'

일 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0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OP석·R석 9만9천원, S석 6만6천원
문의 예명기획 1644-3901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금세기 최고의 스타 일리쉬 락 뮤지컬 '헤드윅'. 동독 출신의 실패한 트랜스젠더 록기수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헤드윅'은 1998년 뉴욕에서 초연된 후 파격적인 비주얼과 심장을 멎게 하는 강렬한 퍼포먼스, 역동적인 락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2005년 4월 국내 초연 이후 지금까지 총 열 번의 시즌을 거치며 전 세계 '헤드윅' 중 가장 많은 공연과 관객을 기록하기도 한 '헤드윅'은 특히 조승우, 오만석, 조정석, 김다현, 송승헌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들을 배출하며 금세기 최고의 흥행불패 뮤지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2005년 초연 당시 무대를 빛냈던 배우 오만석과 새로운 도전과 파격적인 변신으로 화제를 모은 배우 유연석이 서로 다른 매력의 헤드윅으로 관객과 만난다.

패밀리쇼 '핑크퐁과 상어가족'

일 시 12월 9일~10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6: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1층) 5만5천원, R석(2층) 4만4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극단 화랑 1644-5564



전 세계 1억 5천만 유저가 열광하는 유아동 교육 브랜드 '핑크퐁'을 뮤지컬로 탄생시킨 '핑크퐁과 상어가족'. 국내 앱 마켓 교육 분야 5년 연속 1위 및 112개국 앱 마켓 교육 매출 1위를 달성한 '핑크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240만 명의 구독자, 누적 조회수 22억 회에 이르는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다. 아기상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핑크퐁과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색감의 LED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더욱 풍성하고 화려해진 핑크퐁 인기동으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2017 NEW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일 시 12월 14일(목)~17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원
문의 라일락항기 904-0825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린이 관객과 만나는 신나는 캐롤이 함께하는 성탄 뮤지컬 '2017 NEW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우리에게 친숙한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 할머니를 돕는 착한 영희를 통해 교훈과 감동을 함께 전해주는 '2017 NEW 루돌프와 산타클로스'는 뮤지컬 전문 연기자들이 펼치는 완성도 높은 노래와 연기, 대형 트리와 별 조명, 눈 내리는 무대 등 화려한 무대장치로 볼거리를 더해준다. 특히 이야기를 진행하는 산타의 흥미로운 마술쇼와 장면 전환 시 펼쳐지는 신비한 레이저쇼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작, 연출/조일영

크리스마스 특집
신개념 나이트 연극 '더가이즈'

일 시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8:00, 2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4일~25일 일·월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이골림 부산 1644-5764



관객의, 관객에 의한, 관객을 위한 연극, 신개념 나이트 연극 '더가이즈'. 클럽이 대세가 되어버린 요즘, 나이트클럽의 빅뱅이라 불리던 전설의 4인조 라이브 DJ팀 '포쌌'은 어느덧 새로운 대세에 밀려 지방 나이트클럽을 전전하게 된다. 그러나 포기를 모르던 그들 앞에 어느 날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고 그들은 화려한 재기를 꿈꾸며 무대에 오르는데... 한시도 눈을 땄 수 없는 후끈한 4남자의 청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지는 '더가이즈'는 지난 2015년 초연 이후 신나는 댄스음악과 유쾌한 스토리,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배우들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Program Guide

무용 | Dance

콘서트 | Concert

싱어롱 콘서트뮤지컬 Live Show '무지개 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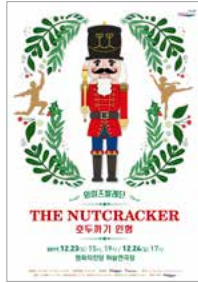
일 시 12월 30일~3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극단 화랑 1644-5564



전 세계 2,500만 어린이를 사로잡은 스위스 작가 마르쿠스 피스터의 동명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라이브 쇼 '무지개 물고기'. 육십꾸러기 친구 어린이가 친구들을 떠나 보내고 우연히 멋진 MC가 재를 만나 바닷속 여행을 떠나게 된다. 푸른 바다 마을에서는 무지개 물고기와 바다 친구들의 레인보우 콘서트 준비가 한창이고 이때 험상궂은 사카가 바다 친구들을 찾아와 훼방을 하는데... 배우와 관객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국내 최초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인 '무지개 물고기'는 아름다운 바다 속 판타지가 가득한 다이나믹한 쇼플레이잉 속에 나눔과 화합이라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와이즈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 시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4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매년 12월 영화의전당이 마련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발레 '호두까기 인형'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우수 발레단을 초청,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려온 영화의전당은 올해 클래식 발레와 창작작품 활동을 통해 발레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와이즈발레단을 초청,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웅장하고 낭만적인 음악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발레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겨울에 만나는 최고의 발레 판타지 '호두까기 인형'은 매년 겨울, 전세계 공연장에서 매진 행진을 이어오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와이즈발레단은 지난 2005년 창단된 후 연간 100여 회가 넘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클래식 발레에서부터 발레컬, 댄스컬 등 Art Collaboration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2017 어반자카파 전국투어 콘서트-부산

일 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10일 일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A석 8만8천원
문 의 (주)밥은누리 1566-9621

심수봉 콘서트

일 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4만원, 2층 3만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해운대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중서 콘서트

일 시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1층) 4만원,
S석(2층) 3만원, A석(2층) 2만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행사 | Event

데이브레이크 크리스마스 콘서트-부산

일 시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스탠딩에그 전국투어 콘서트 'Dramatic Tour'-부산

일 시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7:00,
31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7만원
문 의 (주)훈컴퍼니 031-924-1213

자우림 연말 콘서트 'XX'-부산

일 시 12월 31일 일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R석 1만원, S석 9만9천원
문 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월 4만원
문 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 전 MBC PD가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해설감상회. 내 삶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클래식음악을 만나는 자리. 영상클래식음악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1강 미샤 마이스키-첼로 연주모음곡, 2CELLOS-영화음악 하이라이트
- 2강 헨델-왕궁의 불꽃놀이 모음곡, 베토벤-교향곡 제7번
- 3강 안드레아 보첼라-크리스마스 라이브콘서트 실황
- 4강 브람스-교향곡 제1번, 엘가-첼로협주곡
- 5강 모차르트-오보에 협주곡, 베토벤-합창 교향곡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12월 4일(월), 5일(화), 11일(월), 12일(화), 18일(월),
19일(화) 오후 7:30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음료 포함)
문 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4일(월) 영화로 읽는 세상 이야기 '영화 감독의 영화 만들기'
● 강사/양영철(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5일(화) 회투로 보는 일본의 미학 영화 '타짜',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섬머워즈'
● 강사/안수현(문학평론가,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1일(월) 아시아 영화의 최근 경향

● 강사/김영우(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12일(화) 음악가 이사크 알베니스_다큐영화 '이베리아(2)'-카를로스 사우라 감독

● 강사/정천식(스페인문화연구원, 기타리스트)

18일(월) 광근수의 클래식투어(16)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베를리오즈 '레퀴엠'

● 강사/광근수(음악평론가)

19일(화) 어떤 사랑_보보르·샤르트르

● 강사/이왕주(부산대학교 교수)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겨울 愛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12월 26일, 다사다난했던 2017을 보내며 갖는 12월 마지막 강좌에서는 류트제작가 겸 연주자인 박승웅의 류트 연주로 특별한 송년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5일 (633회) F. Schubert "Winterreise"
- 12일 (634회) Peter Tchaikovsky "Winter Daydream"
- 19일 (635회) Four Seasons "Winter"
- 26일 (636회) 이달의 책 읽기 '세상의 모든 아침(파스칼 키냐르 저, 문학과 지성사) & 송년음악회(류트연주/박승웅, Wine Party)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5강
바그너의 예술세계와 인생 II

일 시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음악은 물론 문학, 미술, 철학, 정치,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끼친 19세기를 대표하는 문예적 인물 바그너의 예술세계와 인생을 찾아

나서는 '바그너의 예술세계와 인생' 두 번째 강좌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마틸데 베젠동크와의 열정적인 사랑과 그의 4부작 '니벨룽의 반지' 등을 주제로 클래식 속 인문학 여행을 떠난다.

지난 47년간 6천여 회의 연주회 해설과 인문학 강의를 가져온 음악평론가 곽근수의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은 풍부한 인문학적 자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를 담은 연주실황영상으로 특별한 음악적 체험을 제공해오고 있다.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19강
역사와 음악의 만남

일 시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역사와 음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카운터테너 김대경과 소프라노 윤경연이 출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정치인이자 장군이었던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바로크 시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카이사르)'를 통해 스토리와 성악이 함께하는 예술융합 콘서트를 마련한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태리로 유학, 로마 신타 체찰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김성민은 현재 (주)유로자전거너라 교육팀장, 수성아트피아 예술아카데미, 부산 무지크바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울산) 등 다수의 기업과 학교에서 예술융합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 | Display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색이 삶을 말하다 제9강
'색이 짙은 곳, 모든 색의 원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색 '검정(The Black)'

일 시 12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퍼스널컬러 전문가 박미송의 강의로 진행되는 무지크바움 인문학강좌 '색이 삶을 말하다'의 9번째 강좌 '검정' 편. 모든 빛의 파장을 품고 있는 빛의 원천으로, 색(色) 세상에서 진정한 역량가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검정'에 대해 알아본다.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시마당 제178회 시낭송회
'송년시낭송회'

일 시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동 오성병원 대강당
입장료 무료
문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사진 미래色 2017
제9회 KT&G 상상미당 선정작가전

일 시 10월 28일(토)-12월 6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055-746-0055, www.goenmuseu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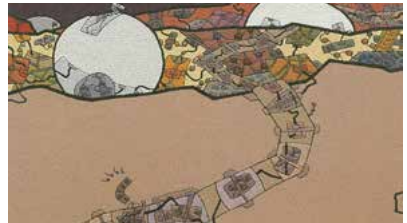
제9회 KT&G 상상미당 SKOPF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박희지와 '올해의 최종작가' 한경은이 참여하는 '사진 미래色 2017'전.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특별전시
향수 nostalgia

일 시 11월 15일(수)-12월 7일(목)
갤러리 을숙도 1, 2전시실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22

곽기수展 '구도추상(求道抽象)'

일 시 12월 1일(금)-12월 14일(목) 이젤갤러리
문의 이젤갤러리 753-4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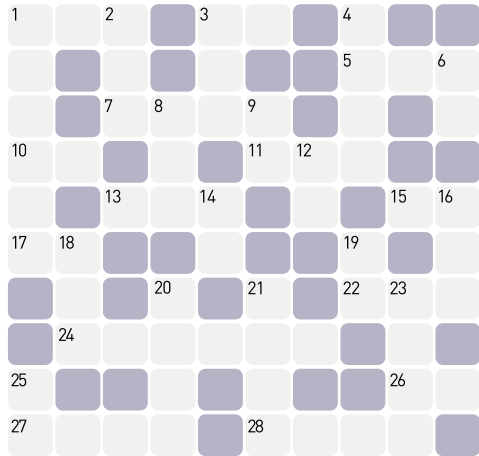


이명호 사진전
Player Project PyeongChang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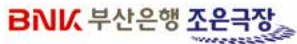
일 시 12월 6일(수)-2018년 1월 7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11명의 열정과 희망, 설렘 등을 담은 이명호 작가의 사진전.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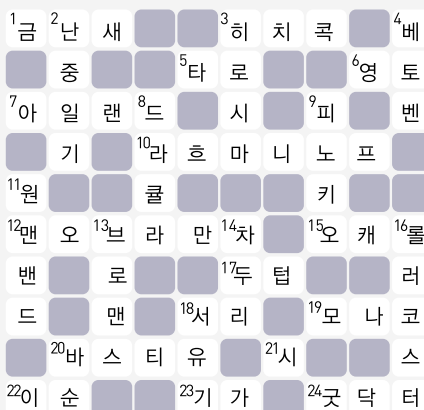
가로열쇠

- ① 2015년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2018년 1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첫 부산콘서트를 갖는다.
- ③ 시인 윤희환의 호(號). 고흥 통영에 그의 호를 딴 문학관이 있다.
- ⑤ 불교의 대중적인 포교를 위해 알아듣기 쉬운 한글 사설을 민요 선율에 얹어 부르는 것으로, 본격적인 불교 음악인 범패에 비하여 음악형식과 사실이 쉽게 짜여 있다. 국악인 김영임의 대표곡으로 유명하다.
- ⑦ '지난 잘못을 고쳐 착하게 바뀌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 ⑩ 단위 면적당 주어지는 빛의 양.
- ⑩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제작한 거북 모양의 전투선.
- ⑩ 남구 용호동에 있는 해안 일대의 암반. 원래는 의기대(義妓臺)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수영성을 함락시키고 이곳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수영의 의로운 기녀가 자칭해 연회에 참가, 술에 취한 왜장을 안고 물속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여 부쳐진 이름이라고 한다.
- ⑩ TV 다큐멘터리를 토대로, 일곱살 같은 서른살 아들과 죽음을 앞둔 엄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조영준 감독, 고두심, 김성균 주연의 영화.
- ⑩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이 직접 각본을 쓰고 주연을 맡은 1977년 개봉작. 스탤론에게 큰 명성을 안겨다 주었으며, 후에 4편의 속편이 제작되기도 했다.
- ⑩ 이탈리아의 자치주이자 지중해 최대의 섬인 시칠리아의 영문 표기명.
- ⑩ 지난 1936년 11월 창간 이후 수십 년간 포도저널리즘의 영역을 개척했던 사진잡지 '라이프'에 게재되었던 작품 130여 점을 전시, 지난 세기의 역동성을 생생히 전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내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 ⑩ 법무법인 또는 종합법률회사.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번의 사건 의뢰로 고객이 추구하는 내용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가 특징이다.
- ⑩ 일본 규슈의 정치, 문화,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중심지. 부산과 서울에서 항공편과 부산에서 고속 페리, 아간 페리 등의 선박편이 매일 운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도쿄, 오사카보다 쉽고 저렴하게 갈 수 있다.
- ⑩ 피부마찰, 일광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의복으로, 주로 수상스포츠를 할 때 착용하는 운동복.

세로열쇠

- ①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② 경계심과 충성심이 강한 한국의 토종개로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다.
- ③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는 지방하천. 서울을 도읍으로 정했던 조선시대부터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개천'이라는 이름이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였다. 1960~70년대 근대화의 상징이었으며, 2,000년대 들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 ④ 태양이 머리 위 천정을 지나는 가장 북쪽 지점을 잇는 위선. 매년 북반구의 여름 하지 때 태양이 머리 위를 지나며, 하지선(夏至線)이라고도 한다. 위치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 40,000년 주기로 2°가량 변화하며 현재는 1년에 약 15m씩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 ⑥ 낮선 외지인이 나타난 후 벌어지는 의문의 연쇄 사건들을 그린 나훈진 감독, 곽도원, 황정민 주연의 2016년 개봉작.
- ⑧ 겨울철에 냉동상태의 공치를 내다 걸어 3~10일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하여 말린 것으로, 주로 경상북도 지방에서 먹던 음식.
- ⑨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
- ⑩ 북극해와 미국, 캐나다 일부 지역,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러시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북극권을 일컫는 지역.
- ⑭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 '춘 추위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소한의 얼음 〇〇에 녹는다라는 속담처럼 사실은 소한이 더 춥다.
- ⑯ 〇〇패가 놀이의 마지막 과정에서 덕담으로 기원하는 고사 문서의 순우리말. 무언가를 빈다는 뜻의 명사형으로 비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 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사자, 가슴은 양, 꼬리는 뱀인 가공 괴물.
- ⑱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
- ⑳ 아시아 대륙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륙. 전 세계 총 지표면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대서양, 북쪽으로 지중해, 동쪽으로 인도양과 접해 있다.
- ㉑ '쏟아지는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음을 이르는 사자성어.
- ㉒ 고대에 비단 무역을 계기로 내륙 아시아를 가로질러 중국과 서방 세계를 연결하던 무역로를 일컫던 말.
- ㉓ 이호(二胡)라고도 부르는 중국의 현악기로 우리나라의 해금과 같은 2현의 활현악기. 애절한 선율이 인상적이다.

지난호 정답



11월호 퍼즐 당첨자

엘로인플라워	신유정(해운대구 반여로), 정혜리(수영구 수영로)
큰집 식사권	신창수(북구 화명신도시로), 안정은(경남 의령군 화정면), 전상수(동래구 쇠미로), 전지연(금정구 금강로), 최영민(남구 유엔로)
BS부산은행 조은극장	김은진(남구 유엔평화로), 신정수(사상구 양지로), 오세진(부산진구 가야대로), 임준섭(수영구 수영로), 정성화(중구 중앙대로)
공간소극장	김경태(남구 유엔평화로), 김현주(수영구 광남로), 신은주(동래구 동래로), 신현희(수영구 수영로), 이지은(서구 보수대로)

RECORD

GM뮤직 제공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안네 소피 무터, 다닐 트리포노프

▶ 바이올린의 여제 안네 소피 무터와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앙상블로 만나는 슈베르트

2016년 데뷔 40주년을 맞은 바이올린의 여제 안네 소피 무터의 새 앨범. '홍내벨 수조차 없는 연주'(시카고 트리뷴), '무결점의 아름다움'(BBC뮤직 매거진)이라는 호평을 받은 이번 앨범은 슈베르트의 실내악을 담은 앨범으로, 슈베르트의 작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들인 피아노 오중주 D.667 '송어',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노투르노' D.897,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 편곡 '세레나데'와 '아베마리아'가 담겨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지난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다닐 트리포노프와 무터 재단 출신의 젊은 아티스트들인 독일 첼리스트 막시밀리안 호르농, 베이스리스트 로만 팻콜로 그리고 한국인 비올리스트인 이화윤이 함께했다. 수록곡 중 '송어'와 '노투르노'는 실황녹음이다.



조종훈의 별나고 신명나는 별신곡

▶ 동해안 별신곡과 재즈, 즉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균형과 조화

국가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곡 이수자이자 전통타악 연주자인 조종훈은 복잡하고 즉흥성 강한 리듬과 장단, 특유의 독창적인 선율, 바로 재즈와 동해안별신곡 음악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이 공통점에 집중한 '별신곡' 음반에서는 무가 선율과 장단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키며 음악의 깊이와 다채로움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음반은 동해안별신곡 음악의 본질을 무게감 있게 지켜내는 조종훈과 더불어 한국의 장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스타일로 소화해 내는 호주의 드러머 사이먼 버커가 함께했다. 사이먼 버커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곡 예능 보유자였던故 김석출 선생의 장구 연주에 매료되어 한국 장단에 빠져든 이후 한국적 가락을 음악에 녹여내어 자신만의 드럼 연주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는 독창적인 드럼연주자다. 재즈드럼과 재즈피아노, 그리고 한국 전통악기인 생황과 피리, 태평소, 양금 등이 어우러져 즉흥성을 바탕으로 한 균형과 조화의 음악이 이번 앨범에 담겨 있다.



알브레히트 마이어 'Tesori d'Italia'

▶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싱글앨범

"유명한 작곡가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의 오보에 협주곡집을 통해 여러분을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 세계로의 신비한 여행에 데려가고 싶다." - 알브레히트 마이어

독일 태생으로 1992년부터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오보이스트로 명실상부 최고의 오보이스트 자리에 있는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싱글 앨범으로, 18세기 초 이탈리아의 오보에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오보에 협주곡의 레퍼토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는 알브레히트 마이어는 앨범 'In Venice'(2008)와 'Lost and Found'(2015)에서도 18세기 후반기 작품을 재발견하여 앨범을 수록하기도 했다. 이번 앨범에도 역시 그는 작곡가 도메니코 엘미의 '오보에 협주곡 가장조'와 주세페 사마르티니의 '오보에 협주곡 가장조'를 세계 최초로 녹음하여 수록했다. 또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비발디의 '오보에 협주곡 가장조'와 조반니 알베르토 리스토리의 '오보에 협주곡 내림마장조'도 담겨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실내 합주단인 이 무지치 합주단이 함께하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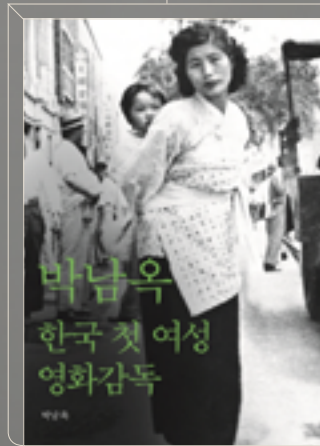
박헌주 · 북칼럼니스트

BOOK



당신은 모를 것이다
정태규 지음 / 마음서재 / 276p / 1만 4천원

루게릭병. 몸에서 근육이 사라지고 전신이 마비 되어 결국 호흡 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부산소설가협회 회장과 부산작가회의 회장을 역임 했던 정태규 소설가는 7년째 루게릭병과 투병 중이다. 전직 국어 교사였던 그는 2011년의 어느 가을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손가락에 힘이 없어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지 못했다. 1년여 병원을 찾다니다가 병명을 알았다. 두 눈을 깜빡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는 그 깜빡임으로 안구마우스를 이용해 글을 썼다. 소설가였던 그에게 글쓰기는 구원이었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병은 그에게 가혹한 운명이라고 왔지만, 그는 곧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다. 이 책에서 그는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갈 땐 결코 알지 못했던 생의 기쁨과 희망에 대해 역설적으로 증언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상의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체험적 고백으로 일깨워준다. 그래서 제목과 부제까지 함께 읽으면 <당신은 모를 것이다-그토록 보잘것없는 순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이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소한 순간들 모두가 빛나는 생의 한 순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박남옥-한국 첫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 지음 / 마음산책 / 276p / 1만 4천원

1950년대, 영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대에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으로 활동했던 박남옥의 연대기가 책으로 나왔다. 1953년 극작가 이보라와 결혼한 박남옥은 첫 아이를 출산한 직후 남편이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갓 난아기를 업은 채 한 손엔 카메라를, 또 한 손엔 기자귀 가방을 들고 매일 '레디고'를 외쳤다. 아침마다 장을 바스태프 밥을 지어 먹고, 치맛단이 헤어지는 줄도 모르며 녹음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만든 영화는 16mm 흑백영화 <미망인>이다. 영화를 배급하기 위해 아이를 업고 팔도를 돌아다녔고, 1960년 도쿄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영화제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박남옥 감독은 단 한 편의 영화를 남기고 잊혀버렸다. 1997년 서울여성영화제가 그의 존재를 추적해 <미망인>을 재개봉하면서 다시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졌고, 그 후 임순례 감독의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생존>에서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 여행을 보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2017년 4월 LA에서 9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책은 박남옥 감독이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쓴 것이다. 그의 삶과 예술을 뒤늦게나마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예술의 사생활: 비참과 우아
노승림 지음 / 마티 / 352p / 1만 6천원

유명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모습, 예술작품의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 책은 예술가들의 사생활을 가벼운 터치로 이야기해준다. 세계적인 명성은 멀게 느껴지지만, 이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가깝게 느껴진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작품을 두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나, 이들의 장례식 모습은 흥미롭다. 1791년 숨을 거둔 모차르트의 장례식은 폭우 속에 치러졌는데, 모차르트가 키우던 개 한 마리만이 쓸쓸히 뒤따랐다. 반면에 1827년 사망한 베토벤의 장례식 행렬에는 온 도시의 사람들이 동참했고, 관이 지나갈 길을 트기 위해 군대가 동원될 정도였다고 한다.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은 유명한 그림이다. 붉은 망토를 두르고 백마에 올라타 전쟁터를 누비는 모습이다. 하지만 알프스 산을 넘을 당시 나폴레옹은 안전한 노새를 타고 선두의 안전이 확인되면 뒤를 쫓았다. 평생 권력자의 꿈꾸리를 따라다녀며 호시탐탐 출세의 기회를 엿보던 프랑스 화가 자크루이 다비드의 기만함이 절묘한 그림을 그렸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다. 예술의 이우라 뒤에 감춰진 통속성이야말로 작품의 가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파편임을 31명의 예술가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책이다.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박재은
www.instagram.com/jaen_life



호응에 채재일 클라리네스트는 '왕벌의 비행' 독주로 답했다. 잠시간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얼굴인 최수열 지휘자와 함께 셰익스피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차이콥스키의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맥베스'는 우리에게 셰익스피어가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비극을 긴장감 있게 전달해 주었다. 때로는 애절하면서 때로는 강렬하고 극적인 그 음악은, 관객들로부터 40분이라는 시간을 흠치기에 충분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최수열 지휘자도 커튼콜에 대한 인사를 전한 후에야 셰익스피어라는 책을 덮을 수 있었다. 유난히도 많았던 커튼콜은 오늘 연주된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한 논증이 아닐까. 아름다운 음악이 그리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나의 내면에 담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의 감동과 아름다움 속에서 끊이지 않던 박수만큼, 끊임없는 연주를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그 울림을 전하는 부산문화회관이 영원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음악으로 듣는 셰익스피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음악으로 듣는 셰익스피어'는 채재일 클라리네스트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베버의 '클라리넷협주곡 제1번'으로 그 문을 열었다. 유려한 클라리넷의 선율은 네 번의 커튼콜을 만들어냈고 그 뜨거운

황현서
www.instagram.com/hsleader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 - IV. 락(樂)

앞들이 아름답게 물든 11월, 영글어가는 열매처럼 알찬 공연이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 사상인 '희로애락'을 주제로 진행된 '노자와 베토벤'이 '락(樂)' 무대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동양의 철학을 대표 하는 노자와 서양의 클래식을 대표하는 베토벤을 내건 수준 높은 4회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2017년을 알차 게 보낸 기분이다. 평소 존경해왔던 최진석 교수님의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오종근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 멋진 곡들을 들려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호흡은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한 조합이었다. 논어에 나오는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의 해설을 들으며 즐기는 것(樂)은 세상과 관계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에 가장 완성된 형태이며, 음악(音樂)의 '樂' 또한 자신을 제한하는 틀을 벗어나 온 몸으로 나를 찾고 불태워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즐길 때 자기가 주인이 된다! 마음껏 즐기자!'는 명제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주제가 '樂'인 만큼 연주된 음악들 또한 신나고 즐거웠다. 지휘자도 춤추게 만든다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7번 중 3악장, 영국에서 제2의 국가로 불릴 만큼 사랑받으며 우리 귀에도 익숙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작품 39, 체코인인 드보르작이 미국에 체재하던 시기에 작곡한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올해 서거 190주년을 기념해 많은 무대에서 연주되고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이 울려 퍼졌다. '노자와 베토벤'은 내년에도 새로운 주제와 함께 다시 찾아온다고 하니 올해보다 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누리고 즐거으로써 부산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문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다장르 전문 공연장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2월 1일 재개관

지난 1월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1994년 개관, 올해로 준공 23년을 맞는 중극장은 총 객석 수 767석의 중형 공연장으로, 전체 객석에서 무대를 볼 수 있어 그동안 부산의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국내외 문화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공연장으로서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제기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12월 1일 새롭게 재개관한다.

중극장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아치형 후면벽면으로 소리집중현상이 유발되던 부채꼴 형태의 공연장을 풍부한 진향음과 측면 반사음을 유도할 수 있는 슈박스 형태의 공연장으로 개선했으며 일부 장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돌출 원형무대는 유선형 무대로 변경했다. 총 773석의 객석은 어느 위치에 서라도 연주자가 쉽게 보이도록 의자 배열을 적절히 배치해 최적의 가시선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객석을 전부 교체하고 좌석간 통로 거리를 넓혔다. 중극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되면서 그동안 객석 수에 비해 협소했던 로비공간을 확장하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통해 여성관객을 위한 여성전용 화장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중극장 공연자를 위한 무대지원시설 및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시민교육시설도 확충된다. 무대지원시설로는 2개의 연습실과 부족했던 단체분장실, 개인분장실이, 시민교육시설에는 사무실과 교육준비실, 2개의 강의실, 2개의 레슨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시설은 그동안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편했던 강의실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다

부산시민회관 시민뜨락축제,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개최

지난 10월 1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로 새롭게 출발했던 부산시민회관이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문화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에서는 지난 10월,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통합기념으로 마련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야외무대 '시민뜨락축제'를 12월 15일까지 계속 연장, 진행한다. 부산시민회관 인근 직장인들과 주민들, 상인들을 위한 소통의 무대가 되고있는 이번 시민뜨락축제는 12월 1일 파워 넘치는 관악양상블의 연주가 돋보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의 연주에 이어 8일 JOY합창단, 15일 강변가요제 수상팀인 '바다새' 출신의 가수 김혜정의 무대가 계속 이어진다.

12월 1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통합기념으로 제4회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순수 아마추어 직장인밴드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는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예선을 거쳐 12월 16일 본선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TV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시즌2'의 최종 우승팀 멤버였던 강형호를 배출하는 등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는 그동안 4회를 거치면서 최고 실력자들의 등용문이 되어오고 있다. 예선 접수는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83)로 문의하면 된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기회원 가입안내



VIP

-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함양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매가능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 무료주차권 10매



SPECIAL

-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예술단공연 4매)
함양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 무료주차권 6매



MEMBER

교향악단 · 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 합창단 · 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예술단공연 2매)
함양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및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5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제외) www.bscc.or.kr



공통혜택

· 가입이전(보통)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예의 초대' 매월 우송
- 공연정보(SMS) 서비스 제공
- 예카데이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천함)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주정)
- 제휴업체 할인 등
- ※ 단체가입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통합기념

제4회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참가신청

접수기간 : 2017. 11. 9(목) ~ 11. 30(목)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www.bscc.or.kr

예선결과 2017. 12. 8(금) 홈페이지 공지

참가지역

부산 울산 경남 순수아마추어 직장인밴드로
구성된 팀(솔로불가)

* 단합지역이 아니어도 무관하거나 본인들의 단체 정규출연
기록 등 프로그램에 관한 참가제한이 없습니다.

시상내역

- 대상(상금500만원, 후원계약지원/부산음악창작소)
- 최우수상(상금300만원)
- 우수상(상금200만원) 외 4팀 시상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T.630-5283



2017. 12. 16. (토) 15:00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극단 제 60회 정기공연 '돌이와 오'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재개관 기념공연으로, 2017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연된다. 이 작품은 오은희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김민준 연출과 박종필 연출감독의 공동 연출로 제작되었다. '돌이와 오'는 부산의 역사를 배경으로,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음악극이다. 공연 시간은 7시 30분(평일)과 5시(주말)이며, 티켓 가격은 R석 20,000원, S석 10,000원이다. 공연 문의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h.or.kr) 또는 전화(051-607-3125)로 가능하다.



예술감독 / 연출 **박종필**
작가 **오은희**

사랑 공감 음악극
돌이와 오
부산항에



2017.12.14(목)~16(토) 평일 7시 30분 / 주말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 최 | 부산문화회관 주 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제작 | 부산시립극단

공연권 | R석 20,000원, S석 10,000원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인터파크 1544-1555 문 | 607-3125(전통예술 및 극단팀)

지휘_ 이정렬(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1. 창과 관현악을 위한 [청장계곡(淸長溪窟)]
(작곡_ 백성기 / 노래_ 박성희, 정선희)
2. 관현악과 국악가요 [문애기 반모정, 세치기]
(작곡_ 신해준 / 편곡_ 박위철 / 노래_ 최유영)
3. 트럼펫 협주곡 [Hummel Fl. Trumpet concerto 3mov.]
(편곡_ 박위철 / 트럼펫_ 드미트리 코카렌코프)
4. 동부민요연곡 [상주아리랑, 경성아리랑, 경선아리랑]
(편곡_ 김성경 / 노래_ 김세윤)
5. 진채바이올린 협주곡 [Dance of moon night]
(작곡_ 안병정 / 편곡_ 이지혜 / 진채바이올린_ 박은주)
6. 민요연곡 [대평가, 정안상거리, 남원산성, 카부리싸럼]
(장타령 편곡_ 김민석 / 노래_ 남상일)
7. 경기도당굿에 의한 타악협주곡 [물굿]
(작곡_ 이영호 / 탕고라_ 이주현 / 징구_ 최오성 / 징_ 최정욱 / 재금_ 박재현)



송년
국악
콘서트
레전드



LEGEND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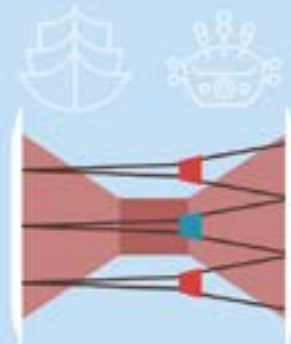


- 구름에 달 가듯이 -



2017.12.21(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문화회관
주 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 장 료 | 균일 10,000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3124

하피스트 곽정의

천상의 소리 | Harp story

하프이야기



Harpist 곽정


2017.12.16^(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Musical GALA concert

김소현 손준호 뮤지컬 갈라 콘서트



12. 27. (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출연. 김소현, 손준호,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 THE MUSE의
공연문의. 051)607-6000 / www.bscc.or.kr(만 4세 이상 입장가능)

2017 - 18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CONCERT III

베토벤 교향곡 제 9번 <합창>
Beethoven **Symphony No. 9 <The Choral>**

지휘 **금난새** Gum Nanse
소프라노 **김유진**
앨토 **박소연**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태경**
연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합합창단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7. 12. 29. Fri. 19:30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300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젊은커피. 착한커피

해리스카페

부산문화회관점

유럽풍 카페테리아
로맨틱한 휴식공간

리셉션 예약

테이블 셋팅 서비스

120석

정기회원할인

문의 1577-2307



**HE
RRIS**
Black Label Coffee



BLUEONE THE HONORS C.C



BLUEONE FAMILY CONDOMINIUM & WATER PARK



BLUEONE PRIVATE CONDOMINIUM

BLUEONE RESORT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한 품격있는 리조트

최고의 골프클럽, 사계절 워터파크, 안락한 콘도미니엄
블루원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BLUEONE SANGJU C.C



BLUEONE YONGIN C.C



INJE SPEEDIUM

최고의 크리에이티브와 전략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효민디앤피**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서비스와 디자인 컨설팅,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해 드립니다.

연혁

1986 03	효민문화사 설립
1993 05	효민인쇄출판사 상호 변경(출판등록 : 제3-329호)
2001 08	지식경제부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출범(시각 디자인)
2001 08	효민디앤피 상호 변경
2006 04	4색 옵셋인쇄기 도입
2010 11	지식경제부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 제품 디자인)
2011 03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 포장, 멀티미디어 디자인)
2012 07	효민디앤피 사옥 준공
2013 12	부산광역시 창조문화산업 선도기업 선정 (2014-창조문화산업-20) (전)
2014 01	효민디앤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4 11	6색 옵셋인쇄기 도입
2016 08	인쇄 공장 및 사옥 증축(350평 규모)
2016 10	중소기업청 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

수상 및 인증현황

2005 10	지식경제부 주최 Good Design 마크 획득(천년약속)
2006 04	지식경제부 주최 Success Design 마크 획득(천년약속)
2006 07	벤처기업 지정(제061235033-1-00267호) (전)
2007 07	경영혁신기업 선정(제070201-01884호)
2010 02	부산광역시 디자인부문 선도기업 선정 (전)
2012 02	벤처기업 지정(제20120101387호) (전)
2015 03	기획재정부장관 표창(모범납세자)
2016 03	지방세 우수납세자 표창(부산광역시)
2017 01	부산광역시 창조문화산업 선도기업 선정 (2017-창조문화산업-16)

소식지

PPT 디자인

일러스트

출판

보고서

카달로그



kidp 공인디자인전문회사

WEB SOLUTION · APP · MOBILE WEB · DIGITAL CONTENTS
C.I./B.I · EDITORIAL · GRAPHIC DESIGN · CARTOON

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지원사업 수행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사업 수행기관

디자인과 솔루션 골든데이



GOLDEN DAY
골든데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잠영로 71 멀티센터 304호
☎ 051.416.1717 · 051.416.7850
www.goldenday.kr · gdday2012@daum.net

알티렌즈 아시아태평양 레퍼런스 닥터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Surgeon

스마일라식

누네빛안과의원

Happy
New Year

2017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NEW YEAR'S EVE CONCERT



2017. 12. 31 (일) 10:30 P.M.

지휘 강석희 소프라노 박지현 바리톤 서정학 오보에 이운정
부산시립교향악단 팜페라콰르텟 디에스 클래식재즈트리오 사회 손지현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 부산MBC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51-607-6000